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8월
석사학위논문

정박과 저항

-킹스톤의 『여전사』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의
여성인물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강 혜 림

정박과 저항

-킹스턴의 『여전사』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의
여성인물 연구-

Anchoring and Resistance in Kingston's *The Woman Warrior*
and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2019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강혜림

정박과 저항

-킹스톤의 『여전사』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의
여성인물 연구-

지도교수 임경규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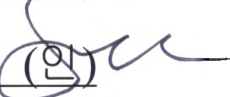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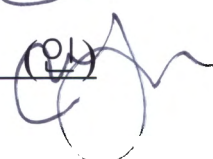
2019년 4월 1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강 혜 림

강혜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u>이정화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	수	<u>김정숙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	수	<u>임경슈 (인)</u> 

201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I**

I. 서론 **1**

II. 『여전사』의 월란 **9**

 1. 닳 없는 개인들 12

 2. 정신병원에서 ‘찾은’ 광기에의 정박 20

III. 『여전사』의 조용한 소녀 **25**

 1. 투쟁의 장에서의 침묵 26

 2. 정박지점으로서의 침묵 29

IV. 『영원한 이방인』의 아줌마 **39**

 1. 수수께끼 혹은 버려진 소녀 41

 2. 아주 먼 친척, 좀비, 시금치 아줌마 45

 3. 부엌과 두 개의 방, 그리고 관계에의 정박 50

V. 결론 **60**

<인용 문헌> **66**

ABSTRACT

Anchoring and Resistance in Kingston's *The Woman Warrior* and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Kang, Hye-r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 Im Kyeong-ku, Ph.D.

This study aims at critically reexamining three Asian American women characters who are related to silence in Kingston's *The Woman Warrior* and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by suggesting different analytic form and perspective. As King-kok Cheung says in *Articulate Silences: Hisaye Yamamoto, Maxine Hong Kingston, Joy Kogawa*, “[S]usceptible to judgement is Asian American silence”(2). Especially, silences of these three Asian American women this study deals with are much more likely to be misunderstood for their changeless and self-defensive attitu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however, is not “articulating” these silences. Rather, this study focuses on the ways in which those Asian women are misjudged as failures of their lives because they are just ‘confined to an image of passivity’ and ‘failed to assimilate into American society.’

Then, how could ‘resistance’ of these three Asian American women be discussed against the discourse that they are just victims or the oppressed of patriarchy and racism?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discover the possibility of their resistance by referring to Foucault’s “power relations” theory that resistance is a part of power relations. In this sense, the women characters’ self-defensive reaction against unpleasant situation could be regarded as resistance at least in passive way.

This study, however, goes further from here and suggests that these three women’s changeless attitudes should be reconsidered as an active resistance with regard to ‘anchoring.’ In the context of this study, anchoring means physical/psychic shelter or

refuge; these three Asian women drop anchor on some places and make it a support of their own lives while living in America as eternal strangers. At the same time, though, anchoring itself possibly could be one way of resistance as well; through anchoring, those three Asian women -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refuse to be entirely captured by the logic of assimilation, and with this rejection they seem to leave their footprints somewhere in the text. Actually,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ir footprints is nearly impossible though, it is important because it exposes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violence which is done to these women is ultimately on the structure. Besides, anchoring itself paradoxically cracks this structure, so that disturbs discriminative and exclusive order of patriarchy and racism. In this reason, we could suggest that anchoring functions not only as physical/psychic shelter for those three Asian women living in America but also as an active resistance by bringing about reverberation effect on the network of power relations.

Body of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chapters. In chapter II, this study deals with one woman character Moon Orchid in relation to her sister Brave Orchid in Kingston's *The Woman Warrior*. Through reexamining Moon Orchid's story, we can suggest that she dropped anchor on madness and anchoring functions as resistance interacting with mental asylum. In chapter III, we will deal with another woman character quiet girl in relation to young Maxine in the same text above. In this chapter, the quiet girl's silence can be suggested not only as weapon of resistance but also as anchoring point. In chapter IV, we will deal with the other woman character Ahjuhma in relation to Lelia, Henry, and Henry's father i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In this chapter, it could be suggested that kitchen, two small rooms, and relationship with Henry's father are her anchoring points.

* Key words: Asian American women, silence, resistance, anchoring, *The Woman Warrior*, *Native Speaker*

I. 서론

아시아계 미국 문학에서 침묵은 문학적 소재(literary trope)로 사용될 때 많은 경우 오해 받는다. 침묵과 관련된 인물들은 지나치게 단순화 되거나 신비화 되어 그냥 ‘지나칠 만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제멋대로 판단해도 좋다고 ‘허용’된 것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침묵(침묵과 관련된 인물들)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질서, 논리, 근거, 규칙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 되거나 다루어지도록 정당화됨으로써 오해 받게 되는데, 우리가 침묵(silent)하는 이들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혹은 침묵 당한(being silenced)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화 되기를 기다려 왔으며, 그러한 요청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구제하도록 ‘부추겼다’는 식으로 말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늘 폭력 아닌 폭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킹스톤(Maxine Hong Kingston)의 『여전사』(*The Woman Warrior*, 1976)와 이창래(Chang-rae Lee)의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 1995) 속 침묵과 관련된 세 아시아계 여성 인물들을 다루려는 시도는 그들을 그저 수수께끼인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는 데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그와 동시에 이 작업이 인물들에게 어떤 인식론적 폭력을 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텐데, 침묵에 아무리 조심스레 접근한다고 해도 작품을 바라보는 틀과 관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그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자로서 인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들 여성 인물들의 침묵이 오해 받는 부분을 모두 찾아내 원천 봉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텐데, 여기서는 특히 침묵이 아시아계 여성 인물들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와 뒤얽힐 때 이미 ‘그 자체로서’ 부정적인 것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침묵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힘을, 특히 저항으로서의 힘을 실어주려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청(King-Kok Cheung)이 『명확한 침묵: 히사에 야마모토, 맥신 홍 킹스톤, 조이 코가와』(*Articulate Silences: Hisaye Yamamoto, Maxine Hong Kingston, Joy Kogawa*)에서 주목했듯이 침묵은 “어두운 면”(ugly faces)뿐만 아니라 “특별히 힘을 부여

1 여기서 ‘침묵하는’ 혹은 ‘침묵 당하는’ 인물이라는 말 대신에 침묵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때의 침묵이 단순히 ‘부과된 것’이거나 ‘자유 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표현의 사용은 침묵(silent)하는 것과 침묵 당하는 것(being silenced)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그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데가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는 면”(enabling silences)도 가지고 있는데, 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침묵이야말로 “수동성의 반명제”(antitheses of passivity)가 될 수 있다(20). 그리고 던컨(Patti Duncan)은 『이 침묵을 말해: 아시아계 미국 여성 작가와 말의 정치』(*Tell this Silence: Asian American Women Writers and the Politics of Speech*)에서 “아시아계 미국 여성의 경험과 관련하여 침묵이 저항의 전략으로서의 갖는 잠재성을 다시 새기길 시도”하는데, 이 때 그녀는 “미국의 유색인종 여성(women of color), 특히 아시아계 미국 여성의 침묵이 종종 적지 않은 부정적 스테레오타입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침묵의 개념을 그녀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분석”해 내고자 한다(2-3).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청과 던컨이 했던 것처럼 아시아계 여성의 침묵을 분명히 말하는 것(articulating)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침묵을 저항의 도구로 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침묵이 아무 때나 적절히 저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저항의 경우 일정 부분 전략적인 상황 속에서 얘기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침묵이 투쟁의 장에서 저항의 도구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다른 침묵”(other silences)(Duncan 15)과의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그것이 놓여 있는 다양한 “조건(conditions)과 위치(position)의 맥락에서” 얘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agner 99). 그러나 이처럼 침묵과 저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것을 투쟁의 도구²로 보고 침묵 그 자체에 대한 편견에 맞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논문에서 침묵이라는 소재를 일종의 모티프로 보고 있다는 것, 그 참조 범위를 다소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기에 침묵과 관련된 이 세 여성 인물들을 다룰 때 인지해 두어야 할 점은 그들의 침묵이 지시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한다는 것”이며, 어쩌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기존의 말이 적절한 표현 방식이 되어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침묵이 단순히 부재(absence)가 아니라는 것이다(Lyotard, *Differenced: Phrases in Dispute* xi; 스피박 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116 재인용). 그렇기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침묵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담론의 장에서 침묵의 다양한 양상이 얘기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인의 침묵은 평가 당하기 쉽다”(Cheung,

2 물론 III장에서 논의될 『여전사』의 ‘조용한 소녀’(quiet girl)의 경우에는 그녀의 침묵이 일정 부분 투쟁의 장에서 의식적 저항의 전략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저항으로서의 침묵 그 자체라기보다 정박 지점으로서의 침묵일 것이다. 이는 이후 본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Articulate Silences 2)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침묵과 관련된 인물들의 방어적 태도, 변화하지 않으려 하거나 머무르려는 태도 역시 끊임없이 오해 받는 현실이다. 그들은 미국 사회에 제대로 ‘동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동적인 여성상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단순화 되거나 신비화 되고 비난 받는다. 특히 이 인물들은 백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인과의 동화를 열망하는 아시아계 인물들에게도 오해 받고 폭력적으로 고쳐야 할 대상 혹은 불가사의한 관찰의 대상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 사이에도 매순간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권력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여러 이질적인 담론이 충돌하는 장이 될 수도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텍스트의 표면에서 형성되는 인물들 간 승리와 패배의 구도로 나타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집중한다면 텍스트 속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오해나 폭력이 계속 되거나 어느 한 쪽으로 승리나 패배가 기우는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순간의 포착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인물들 사이에 형성되는 권력관계로 눈을 돌림으로써 지금껏 철저하게 희생되고 억압당한 것으로만 여겨져 왔던 세 아시아계 여성인물들의 ‘저항’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했듯이 권력은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관계에서 편재(遍在)하는 것으로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미세한 부분까지 작동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에 대한 저항 역시 권력과 마찬가지로 어디에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푸코, 『성의 역사 1권』 109). 즉 권력이 이처럼 사소한 곳까지 퍼져서 점점 더 미세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할 때, “저항의 지점 역시 권력망의 도처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다만 그러한 저항은 오직 권력의 그물망 위의 “다른 힘과의 역학 관계와 맞물려” 있을 때만 찾을 수 있다(푸코, 『감시와 처벌』 172).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 문학 작품에서 권력과 저항을 얘기할 때 푸코의 권력이론을 적용하는 데는 그 의의와 함께 맹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거기서 간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함께 드러난다. 푸코의 권력이론을 지극히 구조주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저항이 권력 관계의 또 다른 향으로서 어디에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저항은 그저 어떤 힘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반응)으로만, 거대한 권력 메커니즘 속에서 생산되는 효과 정도로만 얘기됨으로써 여전히 수동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인물들 간의 권력관계 내에서 포착되는 승리와 패배의 구도 역시 구조에 구성적일 테다. 그런데 이 한계와 더불어 그러한 권력관계의 형성이 함의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인물들 사이의 힘겨루기, 즉 어느 한 쪽으로 승

리가 기울고 다른 한 쪽은 지나치게 희생된 듯한 상황이나 팽팽하게 긴장감이 유지 되는 상황은 표면적으로 마치 폭력과 저항이 온전히 서로(특정 개인)만을 향한 투쟁의 장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그 자신도 고통 받으면서 다른 인물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가했던 것은 그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견고한 구조, 체계, 틀 속에서 은폐된 채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되 동시에 그것을 보완해 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세 아시아계 여성인물들의 ‘저항’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침묵과 관련 되고 좀처럼 변화하지 않으려 하는 이 인물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의 폭력은 단지 여성 일반에 국한된 문제인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젠더’, ‘인종’, ‘계급’이라는 각각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서 얘기되는 것으로 충분한가?

로우(Lisa Lowe)가 『이민법: 아시아의 문화적 정치에 대하여』(*Immigrant Acts: On Asian Cultural Politics*)에서 말했듯이 이민법이 “공식적으로는 이민자들에게 동화(assimilation)를 조건으로 하여 미국 시민으로서의 평등을 약속”(162)하는 동안 “아시아계 이민 여성들은 그 약속된 땅이라는 모순 속에서 문화적, 인종적, 정치적으로 경계선에 위치”(162) 된다. 다시 말해 아시아계 미국 여성들이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얻는다고 해도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젠더화와 인종화의 “교차점”(intersection)(172)에 서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시아계 여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무언가를 보장 받고 약속 받은 듯해도 사실상 거기에는 언제나 모종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저항은 어떻게 얘기 되어야 하는가?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침묵과 관련 되어 있으며 변화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어딘가에 머무르려는 듯한 세 아시아계 여성 인물들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 이들의 저항은 다른 이들과 연대를 이루는 저항이나 “공동의 역사”(shared history)를 기반으로 하여 원동력을 갖는 저항과는 달리 얘기 될 수 있지 않을까(Hall, 224-25)?

이렇듯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세 아시아계 여성인물들의 저항은 그저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수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이질적인 질문을 끊임 없이 던지고 답해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서구 중심의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를 비판하며 주장한 것처럼, 그들이 이른바 여성에 대한 억압이자 굴레라고 일컫는 것, 벗어 던지고 자유를 외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여성들로서는 당장 그것을 깨부수고 뛰쳐나가 소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들은 크게 말하는(speaking up) 쪽 보다 침묵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들의 저항은 어떻게 얘기 될 수 있을까? 특히 젠

더나 계급뿐 아니라 거기에 인종과 문화의 문제가 끝없이 개입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경우, 그들은 그저 가부장제에 순응함으로써 희생되고 인종주의의 논리 속에서 제대로 동화되지 못하여 낙오된, 이중·삼중으로 구조에 짓눌려 포섭된 존재들로만 얘기 되어야 할까? 그걸로 끝인 것이고, 더 이상의 저항은 얘기 될 수 없는 것일까?³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아시아계 여성인물들의 또 다른 저항의 방법으로 ‘정박’(anchoring)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Anchor라는 용어는 명사형으로는 “(배의) 닻,” “필요할 때 도움이나 안정감(support or stability)을 주는 사람 혹은 그런 것,” “견고한 기초나 토대(basis or foundation)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사용되며, 동사형으로는 “정박시키다, 정착하다, 닻으로 고정시키다, 고착되다,” 더 나아가 “머물다, 쉬다 거처를 정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⁴ 이처럼 이 용어가 갖는 양가적 의미는 앞으로 본론에서 논의될 세 아시아계 여성인물들의 삶의 태도와 관련지어 보았을 때 흥미로운 데가 있다. 한 편으로 anchor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지 않고 어딘가에 ‘고착’되어 있는 듯한 삶의 태도, 혹은 적응하지 못하여 낙오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은 ‘닻을 내리는 장소’와 관련지어 봤을 때, 인종주의와 가부장제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뒤얽힌 교차지점에서 여성인물들의 육체적·정신적 안식처이자 은신처 혹은 버팀목, 즉 일종의 ‘정박지점’(anchoring point)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⁵

3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은 이 논문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세 아시아계 여성인물들을 단순히 계급, 젠더, 인종이라는 단일 범주로 묶지 않고 오히려 침묵이라는 문학적 소재(trope)를 관통지점으로 삼은 이유를 내포하고 있다. 침묵은 단순히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이들 세 여성인물들을 편의상 묶어 주면서도 여러 국면에 따라 개별화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한 연결 고리의 역할을 수행해 낸다. 이를 테면, 침묵은 그것의 표현상 『여전사』의 ‘침묵’(silent)하는 소녀와 『영원한 이방인』의 ‘비교적 침묵’(relatively silent)하는 아줌마 사이의 구분을 가능케 해준다. 물론 이때 침묵이라는 말을 이용한 인물들 사이의 구분은 ‘의미’에 따른 구분이 될 수도 있겠으나, 텍스트 내에 인물에 대해 주어진 정보가 현저히 부족할수록 인물들 간의 ‘기표적 차이’에 의한 구분이 되기도 한다.

4 유의어로는 fasten, fix/fixation, stick to, cling to, adhere to 등이 있으나 이는 anchor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의미에 치우치는 용어들이다.

5 이 논문에서는 세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에게 삶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신체적·정신적 안식처이자 동시에 저항의 기능을 하는 정박지점, 그 개념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의 집에 대한 임경규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임경규는 차학경의 『딕테』(Dictee)에 대한 연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언어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언어가 반드시 지배의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제된 언어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임경규, 『집으로 가는 길』 310-12). 『딕테』의 화자가 강제된 언어를 불완전하게 수용함으로써 저항했다면 화자의 어머니는 강제된 언어를 거부함으로써 저항한 것인데, 이 때 화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모국어를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집을 찾을 수 있는 자리”이자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312-18).

그렇다면 anchor가 갖는 후자의 긍정적 의미를 참조한다고 할 때, 어딘가에 정박하거나 닻을 내리는 것 혹은 정박지점을 갖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우선, 이 논문에서 정박 혹은 정박지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사회학적 맥락에서, 즉 계급과 젠더의 측면에만 집중하여 이해하고자 함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논문에서 인물들의 정박지점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위해 어딘가에 닻을 내리는 은유적 행위나 그러한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⁶

다음으로, 이 세 아시아계 여성인물들이 나름의 정박지점을 찾고자 할 때, 이때의 정박은 고착이나 항구적인 머무름이 아니다. 즉 정박이 돌아올 수 없는 상상적인 것으로의 퇴행이나 영원한 은신처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인데, 닻은 내리는 것(drop anchor)일 뿐 아니라 올리는 것(weigh anchor)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안착이 누군가에 의해 떠밀리듯이 강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안착시키려 할 때의 피해와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구조의 폭력성)

마지막으로, 세 여성인물들의 삶의 태도는 정박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지 방어적 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의미화 된다.⁷ 이들 여성인물들은 그저 가부장적인 논리에 순응하거나 희생당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인물들 역시 사실상 가부장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밝혀지는 것은 구조의 폭력성이다. 또한 이 여성 인물들은 어딘가에 고착돼 미국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 혹은 은둔자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히

6 이처럼 정박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이상, 장소(place/point/spot)와 공간(space/room)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은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 여성 인물이 어딘가에 정박한다고 할 때, 정박 장소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성(positionality)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얘기 된다면, 정박 공간은 여성의 육체가 특히 가정이라는 규율의 구조에 통합됨으로써 분리된 영역(separate sphere) 담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얘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Massey 1; Park & Wald 610).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단지 젠더 관계나 계급에 국한된 공간과 장소의 개념에 대한 반박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안식처이자 동시에 저항의 기능을 하는 정박 개념을 중심에 두고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7 이 논문에서는 정박을 ‘신체적·정신적 안식처’의 의미에서 확장하여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홀은 늘 내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적 힘”이 주체에게 가져오는 “규범화의 효과”를 비판한다. 홀에 따르면 “힘/지식(power/knowledge)은 지배적 담론의 장에서 주체나 어떤 집단을 타자(Other)로 위치”시킬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강요”(inner compulsion)에 의해 주체가 “규범에 적응”(con-formation to the norm)하도록, 그리하여 결국 “그들 자신을 ‘타자’로 보고 경험하도록 만든다”(make us see and experience ourselves as ‘Other’)는 것인데, 그는 이에 덧붙여 이런 식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내적 몰수”(inner expropriation)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곧 수많은 “닻/정박(anchor) 없는 ‘개인들’(individuals)이 생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Hall, “Cultural Identity” 225-26, 원문 강조).

려 동화에 대한 이들의 ‘거부’는 곧 구조적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인종주의적 논리에 ‘균열’을 낸다. 그리고 인물들의 이러한 저항을 통해 평평하게 긴장된 “세력 관계의 일시적 전도” 가능성과 함께 그것이 권력의 “그물눈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포착할 수 있다(푸코, 『감시와 처벌』 58). 이때도 역시 드러나는 것은 구조의 폭력성이다.

요컨대, 침묵과 관련된 세 아시아계 여성인물들의 방어적 태도는 그러한 반응이 어떤 힘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에서 권력 관계의 또 다른 항으로서 저항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때 가부장제와 인종주의에 철저히 희생 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였던 그들의 삶은 정박과의 관련성 속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저항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여성들은 나름의 자리에 신체적·정신적 안식처로서 정박지점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에게 가해진 인종주의적·가부장적 논리를 거부하는데, 그러한 거부는 지금껏 이들 인물들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포획하려 드는 구조에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쾌한 것을 피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삶의 버팀목으로서의 각자의 자리에 정박지점을 마련하여 거기에 닿을 내리고,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했던 이들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노력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균일한 구조 속에서 유지되어 왔을 차별과 배제의 논리와 질서에 균열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교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작품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과 틀을 제시함으로써 『여전사』와 『영원한 이방인』 속 세 아시아계 미국 여성인물들의 이야기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푸코가 주장했듯이 권력이 편재 되어 있고, 이제 는 대대적 저항, 소위 혁명적이라 일컫는 그런 저항이 어렵다면, 이 여성인물들을 단지 저항 불가능한 존재들로 단정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항 역시 더욱 미세한 방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들 여성인물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저항의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⁸

8 이 논문에서 아시아계 여성 인물들의 ‘저항’은 계급의식을 갖는 것, 다른 이들과 연대를 이루거나 공동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원동력을 갖게 되는 저항과는 달리 얘기되고 있다. 어떤 힘의 작용에 대한 이들 여성들의 반응과 태도는 처음에 『감시와 처벌』 시기 푸코의 권력이론의 맥락에서(구조에 구성적이라는 의미의)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심지어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분석가가 어떤 것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방해물 혹은 변화를 거부하는 일종의 유아적 퇴행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텍스트에 남겨진 의미심장한 흔적들 속에서 ‘정박’ 개념과 관련지어 봤을 때 달리 얘기될 수 있다. 즉 이 여성들은 자기 나름의 공간에 정박지점을 마련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때의 정박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 강요되는 규범적인 문화의 폭력적 논리에 대한 거부의 기능을 수행해 내고, 이러한 거부는 텍스트 속 인물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넓은 의미’에서 동화주의적 논리에 ‘균열’을 낸다. 이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정박이 적극적인 저항, 즉 ‘삶의 저항’으로 얘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다루게 될

이 논문의 본론은 총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II장에서는 『여전사』의 월란(Moon Orchid)이라는 인물을 언니 용란(Brave Orchid)과의 관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자 여성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정박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그러한 정박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동화주의의 폭력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신병원이라는 공간과 광기에의 정박이 저항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는 점이다. III장에서는 같은 작품을 통해 어린 맥신(Maxine)과의 관계에서 조용한 소녀(quiet girl)라는 인물을 다룰 것인데, 이때 소녀의 침묵은 투쟁의 장에서의 저항의 무기이자 정박지점으로 얘기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아시아계 인물들로 하여금 규범적 미국인이 되도록 내적으로 강요하는 동화주의적 논리의 폭력성이 드러난다. IV장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의 아줌마(Ahjuhma)라는 인물을 릴리아(Lelia), 헨리(Henry), 헨리 아버지와와의 관계 속에서 다룰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아줌마가 부엌과 두 개의 방, 그리고 헨리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정박한 것으로 볼 텐데, 이 때 정박에 대한 논의는 신체적·정신적 안식처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가시성/비가시성의 양가적 의미가 함께 얘기될 것이기에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즉 여기에는 아줌마를 바라보는 인종주의적인 시선과 그것에 대한 교란이 맞서는데, 시선의 이러한 교란은 궁극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작동시키는 균일한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인물들의 저항은 그들이 침묵과 관련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의식적인 것인지 무의식적인 것인지조차 알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그러한 저항은 여전히 (구조나 텍스트에서 작동하는) 정박의 ‘기능’과 ‘효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을 적극적인 저항으로 보는 이 논문의 작업의 유의미함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당시에는’ 단지 소극적인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세 아시아계 여성 인물들의 삶을 ‘사후적으로’ 다른 국면에서 바라보는 한에서일 것이다.

II. 『여전사』의 월란

킹스턴의 『여전사』는 그것의 부제 “유령들 사이에서의 소녀 시절에 대한 회고록”(Memoirs of a Girlhood among Ghosts)이 암시하듯이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비롯한 개인사와 중국의 민담 등이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 한데 뒤섞이고 재해석된 자전적인 작품이자 회고록으로 얘기 되어 왔다. 킹스턴은 이 작품을 통해 중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미국적 정체성을 갖고자 했던 열망과 그것을 찾기 위한 어린 시절의 시도들을 그려낸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은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인종 차별적·성차별적 모순 앞에서 수차례 좌절 되고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된다. 이 과정은 작품 속에서 총 다섯 개의 챕터를 걸쳐 그려지는데, 그 속에는 어린 맥신이 성숙한 작가 킹스턴이 되기까지 영향을 받은 상상 속 혹은 현실의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번 장에서는 그 다섯 개의 챕터 중 「서쪽 궁궐에서」(At the Western Palace)를 통해 월란(Moon Orchid)이라는 인물을 다루어 볼 것이다. 월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작품의 주제 중 ‘광기,’ ‘중국 가부장제,’ ‘강요된 침묵’ 등과 관련되는데, 특히 그녀의 광기는 주로 “미국에 적응하지 못해 미치고 만 비극적인 실패”(Huntley 85)로 얘기 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월란의 광기를 단지 슬픈 이야기로만 봐야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레인 킴(Elaine Kim)이 『아시아계 미국 문학: 작품과 사회적 상황 입문』(*Asian America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에서 말했듯이 『여전사』 속 여성 인물들의 “힘의 강함과 약함이 상대적”(207)인 것이라면, 푸코의 말처럼 어떤 인물들 간의 권력의 관계가 “획일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안정한 것이며, 저항의 배치 또한 불규칙적”(푸코, 『성의 역사 1권』 112)인 것일 테다. 그렇다면 월란을 단지 중국의 가부장제와 미국의 인종주의에 이중으로 억압되고 희생당하여 끝내 미치고 만 불쌍한 여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광기를 저항과 관련하여, 더 나아가 월란의 광기가 갖는 의미심장함을 정박과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월란은 언니인 용란(Brave Orchid)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 될 것인데, 이 두 자매는 정반대인 듯하면서도 서로 닮아 있다. 월란과 용란의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힘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보이는 것, 즉 두 자매 사이에서 표면적으로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듯한 권력관계와 관련해서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 이들 사이의 힘은 흥미롭게도 서로 평평하게 당기며 긴장감을 유지한다기보다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있다가 다른 한 쪽으로 갑자기 전회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하였을 때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용란 쪽에 힘이 실려 있는 것 같다가도 후반으로 가서는 월란의 광기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힘의 전회 혹은 뒤집힘처럼 보이는 순간에 주목함으로써 무엇보다 월란의 이야기를 단지 슬픈 비극이 아니라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저항인가? 푸코가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에서 언급했듯이 권력은 특정 인물에 의해 소유·획득·보존되는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긴장되어 있고 늘 활동 중인 관계망” 속에서 작동한다. 다시 말해, “권력의 여러 관계들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결점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성의 중심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푸코 57-58). 이러한 권력의 불안정성은 월란이 자신에게 닥친 불쾌한 상황들에 보이는 작은 반응들을 적어도 어떤 힘에 대한 대립항으로 봄으로써 그것을 저항이라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 광기 속에서 비로소 되찾은 혹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월란의 또 다른 모습, 그 의미심장한 행복에 주목한다면 광기를 통한 상황의 일시적 전도 가능성, 심지어 그것이 텍스트 혹은 ‘어떤’ 권력관계의 그물눈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월란의 저항의 길은 바로 거기, 광기에 있다.

하지만 이처럼 광기가 갖는 전복적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월란의 이야기를 재검토하는 것이 용란과 월란 중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를 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들 사이의 권력구도처럼 보였던 것은 월란의 광기와 함께 와해되는 듯이 보이고, 심지어는 무의미해지는데, 사실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뒤야 하는 것은 이러한 와해에 있다. 즉 승자도 패자도 없는 듯한 권력관계의 와해를 통해 용란과 월란 두 인물 모두 사실은 미국 사회의 동화에 대한 요구에 압도적으로 짓눌려있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폭력성과 배타적 문화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은 이들은 없었으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용란과 월란은 더욱 닳아 보이는데, 월란을 광기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녀의 이야기가 비극이 되도록 했던 힘은 용란이 강박적으로 자신의 동생을 안착시키려 했던 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의 동화를 강요하는 문화적 폭력은 용란이라는 모순적 인물을 생산해내고 그녀가 그러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재생산 되도록 한다. 그렇기에 이 논문에서 단지 저항으로서의 광기 자체뿐만 아니라 정박지점으로서의 광기

에 대해서도 애기함으로써 월란의 광기를 달리 바라보려 할 때, 이러한 시도는 구조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요컨대 이번 장에서는 월란의 슬픈 이야기(sad tale)를 거꾸로 바라봄으로써 저항의 가능성을 애기하고 그것에 정박이라는 개념을 접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월란과 용란 사이에 형성되는 성공-실패, 억압-희생의 이분법적 도식의 전형적 두드러짐은 흥미롭게도 미국 사회의 동화모델과 배척 문화가 갖는 구조적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용란과 월란 사이를 단순히 권력관계로 봄으로써 소위 어느 한 쪽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것에 있지 않은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권력이 특정 인물에게 영광스럽게 부여됨으로써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면, 성공과 실패라는 것 역시 그저 단순히 이해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장에서 월란과 용란의 사이에서 일종의 힘의 긴장상태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그 두 개인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 문학의 맥락에서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월란과 용란의 관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포착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조심스레 가치매김 하고자 했을 때 결코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은 바로 어떤 폭력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월란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 볼 수 있다. 오히려 정신병원에서 행복해하던 월란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저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광기 및 정박과 관련하여 월란의 저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듯 월란의 경우는 언니 용란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애기됨으로써 미국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폭력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아시아계 이민 여성이 미국이라는 현실의 땅에 발붙이기 위한 정박지점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다시 읽힐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구조의 짓눌림 속에서 승자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구조의 완전한 승리로 끝맺음하려는 게 아닐 텐데, 저항은 어디서든 애기해 볼 수 있으며, 그것이 광기의 문제일 경우는 더욱 그렇기 때문이다. 더불어 월란의 예시는 정박지점이 없을 때의 참담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데서 이번 장의 의의가 있다.

1. 닳 없는 개인들

월란에게는 미국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이 있다. 언니 용란은 많은 편지를 보낸 끝에 동생 월란을 설득하여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 오게 된다. 그런데 공항에서 월란을 기다리는 내내 용란의 불안함은 계속 된다. 용란은 공항에서 월란을 만나 그녀가 무사히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의심한다.

“만약에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녀가 생각하길, “난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조언이라도 해 줄 거야.” [. . .] 용란은 어디에서도 월란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4시간 동안 서서 월란을 기다렸다. [. . .] “저기 월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 용란이 말했을 것이다. “아뇨, 저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엘리스 아일랜드는 나무와 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는 모든 게 새 플라스틱이었고, 이게 다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껴 안심하고 그들의 비밀을 발설하도록 현혹하려는 유령들의 속임수이다. 그리고 나면 이민국은 그 이민자들을 곧장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 . .] 용란은 중국인 청소부나 직원이 월란을 찾아내 주길 바랐다. 짐을 옮기는 컨베이어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골드 마운틴에서의 생활이 수월할 것이라는 착각이 들게 한다.(*WW* 114-16)⁹

공항에서 월란을 기다리는 동안 용란이 이처럼 발을 동동 굴리는 것은 동생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반가운 마음이나 설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입국 심사대 검문소의 직원들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렇다면 용란의 이러한 경계심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용란이 이민법에 담긴 법적 허용과 배제의 교묘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시 말해, 미국이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아시아의 이민자들을 노동자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비백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모순된 것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용란은 인식하고 있었던 걸까(Lowe 159)? 용란은 그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인들을 유령(ghost)이자 속임수(trick)를 부리는 자들로 인식한다. 그들에 대한 용란의 경계심은 단지 그녀가 미국 땅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 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아마 그

⁹ 앞으로 『여전사』(*The Woman Warrior*)의 텍스트 원문을 인용할 때는 *WW*로 간단히 표기할 것임을 밝혀 둔다.

녀는 그러한 차별과 배제의 의도를 적어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어렵פות이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 즉 공항에서 월란을 기다리는 용란의 이 같은 불안과 경계, 즉 스스로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반아시아적 감정의 결과로 나타난 일련의 반중국적 정책들”에서 기인한 것일 테다(Wong & Sumida, *A Resource Guide* 90). 용란의 불안은 ‘이유도 모른 채’ 미국 유령들에게 ‘속아서’ 미국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가짜 이름과 서류”(false names and papers)(90) 뒤에 철저히 숨어야 했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이 용란이라는 캐릭터가 여러 모순을 갖는 이유이다. 중국에서 용란은 성차별적 편견들을 이겨내고자 여전사처럼 강해져야 했고, 미국에 와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이겨내고자 항상 노동하고 그저 쫓겨나지 않기 위해 주변을 경계해야 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의학을 공부했던 용란의 여전사적 면모는 미국이라는 현실에서 문화적 장벽에 부딪혀 노동자, 이민자, 불침번으로서의 삶과 뒤섞이게 되는데, 그녀는 여전히 여전사답지만 어딘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순적인 인물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폭력 속에서 생산된 모순적 인물로서 용란은 자신이 삶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이 신념들로, 자신의 방법대로 동생 월란을 보호하려고 한다. 용란은 월란이 입국 심사대에서 유령들에게 속아 말을 잘못하여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될까봐 그토록 불안해했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월란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용란 자신이어야 했다. 즉 월란을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가 미국 땅에 제대로 발붙이도록 돕는 것은 용란이 생각하기에 자신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용란의 계획대로라면 월란은 그녀가 미국에 온 이상, 미국에서 결혼한 남편을 찾아가 그에게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했는데, 중국에서라면 그것은 월란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였다. 하지만 용란이 보기에 그녀의 동생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는커녕 미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월란은 그저 “연약한 동생”(WW 127)이자 “조그만 늙은 여인”(WW 127)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용란은 동생이 미국에 발붙일 수 있도록 자신의 방식대로 규칙을 다시 세운다. 용란은 “그 고상한 동생을 강하게 만들어야 했다”(WW 127).

그러기 위해서 월란은 노동을 할 줄 알아야 했다.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 용란은 월란에게 갖가지 일을 시켜 본다. 하지만 그녀는 청소, 바느질, 요리, 다림질 등 모든 것에 서툴렀으며, 간단한 일조차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심지어 그런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이 연신 장난스럽게 웃어댄다. 고급스러운 말투에 고운

손을 가진 월란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용란이 보기에 월란은 그녀가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져온 종이인형, 예쁜 옷, 장신구만큼이나 “사랑스러웠지만 실속 없었다”(WW 128). 게다가 월란은 미국인을 경계하기는커녕 자신과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용란의 2세대 아이들을 그저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감탄하기에 바쁘다. 심지어 월란은 그 ‘미국’ 아이들을 “문명으로부터 떨어져 자란”(raised away from civilization), “야생동물”(wild animals), “야만”(savage)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순수하게도 전복적인 발언을 내뱉기까지 한다(WW 134-35).

이렇듯 미국에 발붙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월란이 잘 따라주지 않자 결국 용란은 월란이 미국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해 정착한 남편을 하루 빨리 만나 그에게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월란은 용란의 계속되는 강압적인 태도 앞에서 여러 번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물론 월란의 말은 강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회피전략으로 보일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분명히 거절했다는 것이다. 월란은 용란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나 “나 무서워서 홍콩에 돌아가고 싶어.”(WW 125)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남편을 만나지 않아도 ‘용란의 집에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행복하다’(WW 142)고도 말했다. 무엇보다 억지로 끌려가듯이 남편을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는 걱정을 수차례 표현했고, 계속해서 괴로움과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쩌면 월란으로서의 최선의 표현이었을 테다.

하지만 월란의 이러한 저항은 여전사와 같은 용란을 막을 수 없었다. 용란은 월란의 그런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듯이 그저 자신의 계획을 이행하려 한다. 그 계획대로라면 월란은 남편을 만나 그에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중국에서는 첫 번째 부인에게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용란이 모순된 캐릭터인 만큼 그녀의 이 같은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용란은 처음에는 월란에게 미국에서 발붙이기 위한 ‘노동의 법칙’을 가르치려 들더니 이제는 중국에서의 ‘첫 번째 부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월란이 남편을 만나도록 밀어 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러한 밀어붙임 속에서 월란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과 마주하게 된다.

월란의 남편은 그녀를 봤고, 그녀를 알아봤다. [. . .]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며 뼈끔 거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 . .] 월란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도) 모르다며 저어댔다. [. . .] “당신, 여기에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잖아,” [. . .]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야.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당신은 이 나라에서 살아갈 강인함이 없잖아. 나한테 새 아내도 있어.” “[. . .] 난 미국인처럼 살고 있어.” [. . .]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도 없어. 나에게도 겨우 말할 수 있을 뿐인 걸.” 월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린 두 손마저도 숨기고 싶었다.(*WW* 152-53)

위의 인용문에서 월란이 남편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 가장 많이 얘기 되는 것은 그녀가 남편에 의해 침묵 당했다는 것이다.¹⁰ 즉 월란의 경우 남편이 있는데도 마치 미망인처럼 혼자 살아야 했던 것, 그녀는 중국에서 컴퍼스의 한 쪽의 중심축처럼 전통적인 방식대로 남아 원래의 자리를 지키며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월란의 상황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에게 가해진 중국의 가부장제의 폐해를 중심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단순히 가부장제의 폐해로만 읽는 것은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못하는데, 여기에는 가부장제와 인종주의라는 두 가지의 복잡한 상황이 교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월란의 남편은 “미국인처럼 살고 있”(*WW* 153)였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느꼈을 때 쯤 그의 주변에는 완벽해 보이는 새로운 미국식 삶이 펼쳐져 있었고, 이제 그에게 월란은 자신과 너무 다른 사람 같아져서 “마치 오래 전에 읽었던 책 속이나 나올 것 같은”(*WW* 154)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월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월란의 눈에 이제 남편은 마치 “다른 유령들처럼 보였고, 그녀 자신도 (남편에게는) 중국에서 온 유령처럼 보였을 것이다”(*WW* 153).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일지라도 이미 부부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제 부부라기보다 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유령 같이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문화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여기에는 미국의 이민법에 담긴 인종주의적인 역사가 담겨 있다. 월란의 남편은 이민법 덕분에 미국으로 떠나와 중국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이민법 때문에 미국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과거와 단절하고 미국에 철저히 동화되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10 킹콕청(King-Kok Cheung)은 그녀의 논문 「“Don’t tell”: Imposed Silences in *The Color Purple* and *The Woman Warrior*」에서 ‘침묵 당하는 것’을 두고 여러 표현을 사용하는데, “부과된 침묵”(imposed silence), “강요된 침묵”(enforced silence)(172), “침묵할 것에 대한 명령”(injunction to silence)(172) 등이 그것이다. 또한 패럿(Jill. M Parrot)은 남편의 힘에 의한 월란이 침묵당한 것을 두고 “힘에 의한 억압”(suppression by force)(380-81)이라고 표현한다.

월란과 그녀의 남편의 만남은 중국 가부장제의 폐해로만 읽힐 뿐만 아니라 인종주의라는 구조적 문제의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데 월란과 남편의 만남을 이토록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물론 거기에 담긴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맥락에서 월란과 관련된 침묵을 달리 이해해 보고 그것을 광기와 저항의 문제로 이행할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다. 패럿(Jill. M Parrot)은 월란이 남편과 마주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두고, 그녀가 남편에 의해서 침묵 당한 것이라고 얘기한다(Parrot 380). 하지만 초점을 달리 맞추어 본다면 오히려 월란은 언니 용란의 모순, 어떨 때는 미국인이었다가 다른 때는 중국인이 되기도 하는 그 모순 속에서 침묵 당한 것이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용란은 월란을 보호하고 돕겠다는 명목으로, 월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는 것인데, 특히 이는 월란에게 남편을 만나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강요하는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월란이 용란의 그런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분명 작게나마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저항을 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의식적인 거절이든, 무의식적인 회피 전략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저항 속에 분명 그녀의 목소리가 일부분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월란의 이러한 저항은 이후에 있을 그녀의 광기와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용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월란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나 무서워. 홍콩에 돌아가고 싶어.”)(*WW* 125), (“[남편을 만나지 않아도] 난 여기 언니 집에서 언니랑 언니네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걸로 행복한 걸.”)(*WW* 142)

이렇듯 용란의 터무니없는 계획 속에서 월란의 말은 말이 아니었다. 월란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용란의 강한 말 앞에서 목살 당했고 궁극적으로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용란은 월란이 현실과 마주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도록 만들 심산으로 그녀를 밀 수 있을 때까지 떠밀었고 어찌됐든 월란과 그녀의 남편의 만남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현실은 용란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월란의 남편은 거의 미국인처럼 살고 있었고, 월란과 용란의 등장에 수치스러워 하기는 커녕 오히려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 용란 역시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상황이 들어맞지 않자 다소 당황해한다. 자신만만했던 용란도 그 상황을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목적 없이 떠밀려와 그 상황을 마주해야 했던 월란, 그녀는 용란의 떠밀과 남편의 냉랭함 사이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다.

그 짓눌림 속에서 마침내 월란은 미치고 만다. 그녀는 그 날 이후 다음과 같이 빈번

하게 환각을 보고 망상에 시달리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 . .] “나 보러 오지 마. 멕시코 유령들이 언니를 따라 와서 내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 낼 거야. 그들은 언니네 집을 주시하고 있거든.” [. . .] “나 (몸을 숨겨야 해서) 변장했어,” 그녀가 말했다. [. . .] “나 너무 무서워,” 월란이 말했다.(*WW* 155-56)

월란은 일종의 피해망상증을 동반한 편집증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그녀가 용란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월란은 창문과 블라인드를 모두 내리고 문을 잠갔으며, 집 안의 모든 불을 껐다. 그녀는 가족들의 사진을 모두 숨겼고, 그들이 외출할 때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울어댔고 악담을 퍼부었다. 월란은 누군가가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을 찾아내 괴롭히고 쫓아내기 위해 늘 주시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이것이 더 심해졌을 시에 그녀가 피해망상을 품는 대상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월란이 보이는 증상에는 그녀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러한 모습 속에는 노동을 전혀 하지 못해도 즐거운 듯이 웃어대고 용란의 아이들에게 순수하게도 전복적인 발언을 했던 월란은 이제 없는 듯했다.

용란은 월란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 유령의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용란은 월란이 미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삶에 일종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것을 관할하려 했는데, 그 질서는 용란 자신이 살아왔던 기존의 삶의 방식이었으며, 그녀 스스로가 지금껏 옳다고 굳게 믿어 왔을 그런 것들이었다. 즉 용란은 월란을 미국이라는 유령의 땅에 제대로 안착(anchor)시키려 했다. 그러기 위해 월란의 삶에 대한 기획자가 되길 자처함으로써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용란의 그 같은 기획 의도는 월란의 광기라는 결과로 인해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으며 오히려 그 기획 아래에서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드러나게 된다.

“가버리면 안 돼, 귀여운 동생아. 더 이상 멀리 가지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 . .] 월란이 침대 한 가운데에서 잠들어 있을 때, 용란은 그녀의 발치에 공간을 만들었다. 용란은 월란을 이 땅에 정착시키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월란은 매일 점점 더 멀리 미끄러져 갔다.(*WW* 157)

자기 방식대로 동생 월란을 정착시키려고 했던 용란의 시도는 오히려 월란을 짓누름으로써 그녀 스스로가 정착지점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것인데, 그렇게 월란은 어딘가로 미끄러져 갔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용란이 월란의 삶 전체를 기획하기를 자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것은 비단 월란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비극이라고 일컬어지는 월란의 광기는 용란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 용란이 월란의 광기와 마주했을 때, 그녀는 늘 그래왔듯이 자신이 아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월란을 원래대로 되돌려 보려 한다. 하지만 어떤 노력도 소용없었으며, 오히려 월란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간다. 우리는 여기서 용란이 월란을 대상으로 세웠던 맹목적 기획이 실패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용란은 결국 미국이라는 유령의 땅에 자신의 방식대로 월란을 ‘정착 시키지’ 못했다. 다시 말해, 용란은 월란이 정착하는 지점에서부터 방법까지 통제하고 강요하려 들었는데, 오히려 용란의 이러한 폭력적 시도가 월란을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더 멀리 떠나가게 한 것이다. 그리고 용란은 동생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하는데, 월란의 광기는 곧 용란에게 그녀가 여전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용란이 동생 월란을 지켜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월란을 안착시킴으로써 그녀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속에서든 그러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좌절 속에서도 용란이 지켜온 여전사의 일그러진 이미지는 그 자체로 어떤 한계를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용란의 기획의 이러한 실패는 이후에 있을 그녀의 쓰디 쓴 깨달음과 함께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무당」(Shaman)이라는 챕터에서 어머니 용란이 성인이 된 딸 킹스턴과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다.

“나는 너무 고되게 일한다. [. . .] 토마토 냉쿨들이 손을 찌른다. [. . .] 아, 그런데 내 손이 망가진 건 아마 감자 때문일 거다. 난 감자 씻으면서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류머티즘에 걸리겠지.” [. . .] “엄마, 왜 일을 그만두지 않으세요? [. . .] 엄마도 이제 쉬어야 돼요.” “네 생각에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실 것 같니?” [. . .] “여긴 끔찍한 유령의 나라다. 사람들이 일하는 데 평생을 다 보내 버리는 곳이지. [. . .] 중국에서는 내 옷 한 번 걸어본 적 없었다. 난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나 없인 너희 아버지 혼자 너희를 돌볼 수 없었을 거다. 내 근육은 강하거든.” [. . .] 중국에서는 근육 같은 건 필요 없었다. 중국에 있을 땐 나 참 작았지. “[. . .] 우리 이제 다 컸어요. 그러니까 일 그만두셔도 돼요.” “일을 그만 둘 수가 없어. 일을 안 하면 아파 [. . .] 일을 그만 둘 수가 없단다.” (WW 103-4)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를 돌보도록 가르친 건 잘한 것 같다. 우린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게 확실해.” [. . .] “이제 정말이야. 우린 이제 돌아갈 고향조차 없어.” [. . .] “어쨌든 나는 돌아가기 싫다.” [. . .] “공산주의자들은 너무 심술궂어.” [. . .] “새로 오는 이민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엄마. 그 사람들은 진짜 공산당들에게서 도망쳐 온 피난민들이에요.” “그들은 중국 사람들이고 중국인들은 너무 고약해.” (WW 106-7)

위의 인용문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강한 여전사와 같고 노동할 줄 아는 용란도 사실은 마땅한 정박지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랑스러웠지만 실속 없었”(WW 128)던 동생 월란을 자기 방식대로 미국에 정박시키려 했던 용란, 겉보기에는 마치 그녀가 이미 자기만의 정박지점을 찾은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여전사로서의 자아 이미지에 대한 맹목적 믿음과 더불어 노동 할 줄 아는 것을 미국에서 살아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자 규칙으로 여기며 지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월란의 광기라는 결과는 용란이 여전사로서의 이미지에 대해 갖고 있던 확신에 금이 가게 했다. 용란은 끊임없이 노동해 왔다. 심지어 이제는 일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이유와 걱정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노동해야 했다. 이렇듯 용란은 어떤 강박에 짓눌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처럼 쉬지 못했다. 그렇다면 용란의 이러한 강박, 그 자신도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이 월란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강박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 걸까?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중국에 대한 향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과의 대조 속에서 미국이 유령의 나라임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뒤이어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이제는 중국마저도 그리워 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미국도 중국도 그녀의 정신적 정박지점이 되어 주지 못했다. 그녀에게 미국은 유령의 땅이었는데, 오랜 시간 가보지 못한 중국마저도 그런 곳이 되어 버렸고, 심지어 “용란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유령이 되어 버린 것”이다(Huntley 97). 여기에 바로 용란이라는 인물이 갖는 모든 모순이 뒤얽혀 있다. 그녀는 늘 중국에 돌아가길 꿈꾸며 여전사로서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지만,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했다. 또한 용란은 월란 앞에서는 비교적 미국화 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아이들 앞에서는 미국에 동화되지 못한 어떤 중국적인 것의 표상이었다. 이렇듯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제도적·문화적 차별은 용란이라는 인물이 그녀 자신의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령인 것과 유령이 아닌 것을 구분 지어 오도록 했고, 그러한 강박적인 과정 속

에서 정작 그녀는 어떤 곳에도 정박지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처럼 용란과 월란 자매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용란이 갖는 모순성과 폭력성, 그리고 월란의 광기가 용란에게 미친 영향을 자세히 다루는 목적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을 전적으로 용란이라는 개인에게 돌림으로써 그 인물을 추궁하고 비난하려는데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특정 인물의 폭력성에 집중하고 그것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작동하고 있을 구조의 문제, 즉 구조의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월란이 보이는 이 같은 편집증의 증상은 앞의 공항 장면에서 용란이 그녀를 기다리며 보인 태도와 기묘하게 오버랩 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편집증의 증상을 보이는 월란은 공항에서의 용란이 그랬듯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모든 것을 경계한다. 그렇다면 이 두 자매가 그토록 두려움을 호소하고 끝없이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월란의 망상 속에서 그녀에게 피해를 주리라고 생각되는 이들, 그 망상이 지시하는 대상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사실상 어떤 특정한 개인들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향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구조적 폭력성의 맥락에서라면 용란과 월란의 관계를 단순히 승자-패자 구도로 배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상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즉 겨우 빨래 한 장 깎 것을 두고 뿌듯해 하는 월란과 터무니없는 계획을 짜서 일을 벌이는 용란은 서로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거울처럼” 닮아 있었던 것이다(www 118). 이는 강한 여전사와 같은 용란 역시 그녀가 보호하려고 했던 월란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2. 정신병원에서 ‘찾은’ 광기에의 정박

그렇다면 이제는 그저 비극으로 끝맺음될 수도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저항의 가능성을 광기에서 찾고자 한다. 즉 용란의 기획 의도가 빛나가고 질서가 교란되는 지점, 어딘가에 차질이 빚어지는 지점, 월란의 광기라는 여백을 통해 비극이 저항으로 전도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용란의 집에서 지내던 월란은 편집증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결국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월란은 오히려 그곳 정신병원에서 안정되고 행복해 보인다.

용란은 그녀의 동생을 두 번 방문했다. 월란은 매번 갈 때마다 더 야위어 있었고, 이제는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행복했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그녀는 마치 아이처럼 장난을 쳤다. “오, 언니, 난 여기서 너무 행복해. 아무도 날 떠나지 않아. 정말 멋지지 않아? 여긴 다들 여자야. [. . .]” [. . .] “그리고 말야,” 그녀가 용란에게 말하기를, “여기선 다들 서로를 이해해. 우린 같은 언어를 쓰거든. 진짜 똑같은 언어. 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고, 나도 이 사람들을 이해해.” [. . .]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WW 160)

정신병원에서 월란의 행복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광기와 정신병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월란의 광기는 무의지적이다. 즉 월란은 미치고 싶어 미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월란은 용란에게 떠밀리듯이 남편과 억지로 마주하고 난 뒤 미치고 만 것인데, 이러한 “무의지적 광기”(푸코, 『광기의 역사』 254)의 맥락에서라면 이야기는 비극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은 개인을 수용·감금·관리하는 규율의 공간이다. 물론 광인은 늘 주변에 있었고, 그들은 존재만으로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¹¹ 그들은 사회의 모난 부분이자 돌출부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정신병원이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에 포섭 되고 만다. 미친 사람들을 집 안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집 안에서 머무르던 월란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는 것이 이를 암시하는데, 월란은 관리와 치료 차원에서 집 안에만 있다가 그녀의 편집증 증세가 심해지자 가족의 안정을 무너뜨린다고 판단되어 이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텍스트에 드러나 있지 않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월란은 그곳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명목으로 규율화 되고 수월하게 관리될 것이다. 즉 월란의 광기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을 이유로 다시 가정이나 정신병원이라는 구조 내에 포섭된다. 그렇기에 정신병원은 광인들이 모여 수월하게 관리되는 일종의 게토(ghetto)로 얘기될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월란의 이야기는 용란에 의해 침묵 당함으로써 현실에 제대로 발 디디지 못하고 어딘가로 미끄러졌으나 그 곳에서도 포섭 되어 버린, 그야말로 비극인 셈이다.

하지만 정신병원과 광기에 대한 초점을 달리 맞추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용란이 월란에게 남편을 만나도록 몰아붙이고 강요했던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이

11 광인이 도처에 있다는 것은 이 책의 다른 챕터에서 마을의 미친 여자들이 병치되어 서술된 점을 참조한 것이다. (the woman next door, Crazy Mary, witchwoman Pee-A-Nah)(WW 186-89)

장면은 단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데, 한 편으로 이것은 월란이 용란에게 침묵 당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에 대한 월란의 반응이 그저 일종의 회피이자 방어적인 태도였다고, 따라서 월란은 실패했다고 얘기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월란이 용란의 강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비록 작을지언정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목소리, 용란에 의해 침묵 당한 그 작은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신병원과 광기에 대해 초점을 달리 맞추어 보겠다는 것은 월란의 저항에 주목하기 위함이기도 후자의 관점을 따라 얘기해 보겠다. 물론 월란의 저항과 호소가 용란의 강압에 짓눌려 그녀의 귀에 달지 않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것처럼 월란의 목소리가 용란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월란이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정박지점을 찾고자 했던 욕망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는 것이다.¹²

위의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월란에게 정신병원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월란은 그 곳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월란은 미치기 전에 그녀가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용란의 강요에 분명 두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을 강제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얼어붙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으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숨고 싶어 했다. 심지어 미치고 만 뒤에도 역시 그녀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고 의심해야 했으며 증세는 더 심해졌다. 이렇듯 현실에서 월란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듯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신병원에서 그녀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고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보이던 천진난만함과 닮아 있었다. 월란은 정신병원에서는 “진짜 똑같은 언어”(WW 160)를 쓰는 사람들과 모여 지내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행복해 한다. 이는 언니 용란이 월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폭력적으로 재단하려 든 것, 그리고 남편과는 이미 서로에게 유령이 되어버려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아이러

12 용란에게만 동생을 보호하고 여전사로서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지키려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월란에게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일말의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월란은 비록 연약했지만, 그녀가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용란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에 자신의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이러한 월란의 노력은 용란이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음에도 계속 됐다. 앞에서도 반복하며 강조했듯이 이때 월란의 발언이나 태도는 설령 ‘그 당시에는’ 용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저항이 아니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기에 월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녀가 용란의 밀어 붙임에 대해 냈던 목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들리기에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일말의 저항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니하게도 월란은 이처럼 광기 속에서 꼭 찬 말들을 내뱉으며 행복해 함으로써 (언니 용란을 통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침묵을 강요했던 힘, 미국의 동화주의적 논리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폭로하는 듯도 하다. 그리고 용란은 이곳 정신병원에서 비로소 동생 월란의 말들에, 너무 작고 사소해서 들리지 않았던 그 말들에 귀 기울인다.

이렇듯 이 정신병원이라는 공간과 광기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한 편으로 정신병원은 동화 불가능한 광기라는 공백을 남김없이 포섭하는 규율장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월란의 경우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광기에 닿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즉 정박과 관련해 정신병원은 월란의 여러 다른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 놓여있는 또 다른 현실인 셈이다. 광기만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월란은 이곳 정신병원이라는 만들어진 현실 속에서야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데, 지금껏 자신의 말이 빈번하게 침묵 당해 왔을 월란에게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행복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다시 말해, 광기와 정신병원이 월란의 정박지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들이 여러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녀에게 일종의 정신적 안식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에서는 용란과의 관계에서 힘의 전도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월란의 거부가 그저 소극적인 저항에 그치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즉 월란은 현실에서는 용란에게 떠밀려 발 디딜 곳을 찾기 못하고 미끄러졌지만, 뜻하지 않게 정신병원이라는 만들어진 현실 속에서 광기에 닿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정박지점을 찾았고, 거기서 그녀의 행복은 마치 폭력이 근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를 향해 냉소를 머금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광기와 정신병원에 존재하는 역설, 월란이 미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그녀의 광기가 정신병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낸 현실, 거기서의 행복이 뒤엎히게 되는 이 역설은 저항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정신병원과 광기는 월란의 정박과 관련하여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데,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월란의 작은 목소리가 암시하는 것, 거기에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는 정박에 대한 욕망을 조심스럽게 재조명하는 것이다. 요컨대, 월란이 정신병원과 광기에서 정박지점을 찾은 것은 기존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던 월란의 작은 목소리에 담긴 일말의 욕망의 현실화라고 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그곳에서 월란의 행복은 그 자체로서 아직 구조에 포획되지 않은 여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은밀히 암시한다. 이처럼 월란이라는 침묵 당한 인물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녀의 저항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광기와 정신병원은 단일한 범주에서 얘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월란이 정신병원에서 광기라

는 지점에 닳을 내리고 안정을 되찾았다는 역설은 아시아계 이민자 여성로서 미국이라는 현실에 발을 디디는 데 자신만의 정박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방식으로 정박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폭력이 만연하도록 하는 구조적 문제를 폭로한다. 그렇기에 월란의 이야기는 비극이면서도 저항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Ⅲ. 『여전사』의 조용한 소녀

이번 장에서는 『여전사』의 「오랑캐를 위한 갈대 피리 소리」(A Song for a Barbarian Reed Pipe)라는 챕터를 통해 ‘침묵하는 소녀’¹³라는 인물을 살펴 볼 것이다. 이 소녀는 말 그대로 침묵하는 인물이며, 그녀의 말은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인물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어린 맥신의 서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맥신의 시각을 통해 서술 되는 소녀의 모습이 곧 작가의 인식일 것이라고 오해하여 그것이 소녀를 판단하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불쌍한 여자애”(poor girl)(*WW* 182)와 같은 표현이 그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린 맥신과 작가 킹스턴의 인식(awareness)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distance)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Wong & Sumida, *A Resource Guide* 92). 이를 인지하며 이 논문에서는 침묵하는 소녀에 대한 맥신의 혐오, 잔인함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소녀를 단지 과보호 받는 약한 소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녀의 ‘저항’에 대한 논의로 눈을 돌리고자 한다.

물론 이때의 저항은 간단히 얘기 되지 않을 텐데, 소녀가 침묵한다는 점에서 그 저항이 의식적인 것인지 무의식적인 것인지 부터 확실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녀의 저항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녀에 대한 맥신의 고문사건을 통해서 소녀를 맥신과의 “권력관계의 또 다른 항”(푸코, 『성의 역사 1권』 112)에 위치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소녀의 침묵이 갖는 저항으로서의 기능(역할)에 대해 얘기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소녀의 저항을 얘기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즉 이 작업을 통해 소녀에 대한 맥신의 고문사건을 말하게 하려는 의지와 말하지 않으려는 의지 사이의 권력 관계의 장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는 소녀에게 것처럼 끔찍한 폭력을 행한 것에 담긴 어린 맥신의 열망과의 관계에서 얘기될 텐데, 궁극적으로 그런 뒤틀린 열망과 폭력을 부추긴 원인은 어디에 있을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고문사건에서 좀 더 나아가 소녀의 침묵은 투쟁의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13 텍스트 내에서 소녀의 이름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이 소녀는 어린 맥신의 서술 속에서 “속삭이는 조그만 여자애”(one little girl who whisper[ed])(*WW* 169), “크게 말할 수 없는 여자애”(one girl who could not speak up)(*WW* 172), “조용한 여자 애”(quiet girl)(*WW* 172) 등의 말로 지칭되며, 맥신의 반 친구들은 이 소녀가 “병어리”(mute)(*WW* 173)가 아닌지를 의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소녀를 주로 ‘침묵하는 소녀’(silent girl) 혹은 ‘조용한 소녀’(quiet girl) 로 지칭하였다.

맥락에서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문사건에서의 침묵은 의식적인 저항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저항일 수도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식적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저항으로서 소녀의 침묵의 의미는 딱 한 가지의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녀의 침묵은 고문사건 이후 엇갈린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변화한 건 맥신이었고 오히려 소녀는 그 전과 다를 바 없었던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맥신과의 비교 속에서 사후적으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소녀가 그 고문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해를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적으로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듯한데,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녀의 침묵을 달리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문 사건 이후 맥신과 소녀의 이러한 모습의 차이를 두고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침묵, 즉 정박으로 눈을 돌려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작업이 될 것이다.

1. 투쟁의 장에서의 침묵

어린 맥신과 침묵하는 소녀의 관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다루어질 사건은 역시 소녀에 대한 맥신의 고문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고문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맥신이 소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살펴보자. 맥신은 자신의 말하려는 노력과의 대비 속에서 침묵하는 소녀를 병치시킨다. 중국인 학교에서 맥신은 자신이 암기한 것을 친구들 앞에서 낭송해야 했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맥신의 목소리는 “다리가 부러져 상처 입은 동물이 달리듯이”(WW 169)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맥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큰 소리로 낭송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해한다. 그러한 기쁨과 함께 맥신의 시선은 자신과 달리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하는 조그만 소녀”(WW 169)에게로 향한다.

맥신을 비롯한 다른 중국계 미국인 여자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 속에서 마침내 “아직 더듬거리기는 해도 곧 말하는 인격체로서 제법 미국 여성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WW 172).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그 조그만 소녀는 도무지 “크게 말할 줄을 모른다”(WW 172). 이렇듯 다들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반해 이 소녀는 오히려 침묵한다는 점이 자꾸만 맥신의 서술 속에서 포착 된다. 소녀는 평소에 소리 내어 책을 읽을 수 있는데도 애써 말하려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친구들의 인사에

도 대답하길 거부한다.¹⁴ 어쩌면 그런 점에서 그 둘은 상당히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맥신에 의하면 두 사람은 꽤 닮아 있기도 했다. 물론 그 소녀의 부모님은 자기 딸들을 늘 보호하려 든다는 점에서 맥신의 부모님과 정반대였으며, 그 집 딸들은 자기네와 달리 먹고 살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말이다. 그 점만 제외하면 그 둘은 비슷했다. 점심시간이면 반 아이들은 그 조용한 애가 병어리인지 아닌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맥신은 자신이 그 소녀와 친구 사이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뒤이어 맥신은 “그 조용한 애가 싫었다”라고 서술한다(*WW* 173). 그 애랑 같은 팀이 되는 것도 싫고, 그 애의 중국인형 같은 머리도 싫었다.

이처럼 맥신이 소녀를 혐오했던 것은 그저 그 소녀가 자신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 아니다. 어쩌면 달라지고 싶지만 다른 친구들, 특히 백인 여자애들의 눈에서 자신이 그 병어리 같은 여자애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 싫었을지도 모른다. 그 침묵하는 소녀는 항상 미국 여자애들처럼 말하려고 애쓰는 맥신의 모습과 정반대인 듯하지만 동시에 맥신이 그렇게 말하기 위해 외면해야 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과 닮아 있었던 것이다. 맥신은 그런 이유로 그 여자애의 볼을 꼬집어 비틀고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며 고문한다.

“ 왜 말하지 않는 거야?” [. . .] “이제 네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좀 봐.” 나는 그녀를 비난했다. “넌 이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 . .] 너도 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 안 그래? [. . .] 넌 이렇게 평생 병어리로 지내고 싶어, 평생? 넌 치어리더 해보고 싶었던 적 없어? 넌 나중에 커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니? [. . .] 그거 알아? 말을 안 하면 식물이나 마찬가지로. [. . .] 말을 안 하면 [. . .] 넌 뇌도 없고 개성도 없는 거야. [. . .] 넌 네 언니가 평생 네 곁에 있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 . .]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말했다. “너 감히 어디 가서 내가 너한테 이런 짓 했다고 말하기만 해 봐. 말해. 제발 말하라고.” 나는 현기증이 났고,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 애의 흐느낌과 내 흐느낌은 어떨 땐 뒤섞였고, 어떨 때 번갈아가며 세차게 타일 바닥 위로 울리고 있었다. “난 도대체 네가 왜 말 한 마디를 못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이를 악문 채로 울었다. [. . .] 나는 그 애의 피부를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 볼을 꼬집는 것을 멈췄다. (*WW* 180-81)

이 고문은 청(King-Kok Cheung)이 말했듯이 “중국적 자아에 대한 맥신의 자기 혐오”이

¹⁴ “그녀는 속삭이듯이 읽을 수는 있었지만 말하진 않는다.”(*WW* 173) “[. . .] 그녀는 대답하기를 거부했다.”(*WW* 173)

자 동시에 “백인 여학생들 무리에 끼고 싶은 맥신의 열망”으로 얼룩져 있었다(Cheung, *Articulate Silences* 89). 즉 이것은 맥신의 뒤틀린 열망 속에서 자행된 침묵하는 소녀에 대한 고문이자 곧 자신에 대한 고문이기도 했다. 맥신은 소녀에게 말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소녀를 돕기 위한 자신의 노력임을 강조한다. 치어리더가 되고 싶지 않느냐며 유혹하는 듯도 하며, 말을 하지 않으면 뇌도 개성도 없는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한다. 전자가 맥신 자신이 수없이 열망하던 바였다면, 후자는 맥신이 두려워했던 것인데, 그녀가 생각하기에 침묵은 곧 “아이큐가 영”(zero IQ)(*WW* 182)인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 온 맥신에게 말하는 것은 미국적인 자아를 갖기 위해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침묵을 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지도 어려웠다. 중국 여성 목소리로 “너무 크게” 말해서도 안 되고 비교적 “속삭이듯” 미국 여성처럼 말해야 했다(*WW* 172). 그렇기에 어린 맥신에게 규범적인 미국 여성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침묵 같은 것은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고문하고 있는 이 소녀는 도무지 말하려고 애쓰는 법이 없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돈다. 아무리 세계 꼬집고 욕박질러도 소녀는 눈물을 흘리지언정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결국 맥신은 소녀와 함께 거의 흐느끼고 있었고, 곧 그녀를 꼬집는 것을 그만둔다.

패럿은(Jill. M. Parrot) 이 고문 상황을 말할 것을 강요하는 맥신과 침묵하는 소녀 간의 “투쟁”으로 보는데, 소녀가 말할 줄 알면서도 그러길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침묵은 그녀가 힘겨루기의 장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치열한 “저항의 무기”라는 것이다(383-84). 이는 소녀의 침묵을 맥신이 가하는 힘에 대한 또 다른 힘으로 위치시키고 소녀의 침묵을 의식적인 저항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녀는 그녀를 말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맥신의 의지에 대해 그저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말하지 않을 “의지”(383)를 보이는데, 이것은 둘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맥신은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결국 소녀를 말하도록 굴복시키지 못하고 울기 시작한다. 그 투쟁의 장에는 누구 것인지 모를 훌쩍거림이 뒤섞여 울려 퍼진다. 이에 맥신은 이 침묵하는 소녀를 두고 “왜 말 한마디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WW* 181)라고 말한다. 맥신은 말 한마디를 뱉어내지 않아서 이 끔찍한 폭력을 당해내고 있는 혹은 버터내는 소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 봉착한 것이다.

2. 정박지점으로서의 침묵

[. . .] 나는 이상한 병을 앓아 다음 열여덟 달을 침대에 누워서 보냈다. 그 병에는 고통도 없고 증상도 없었다. [. . .] 나는 거실에 빌려 놓은 침대 위에 누워 드라마를 보며 지냈다. [. . .] 나는 그 동안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고, 가족들은 나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다. 다른 친척들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 [. . .] 나는 도움이 필요하면 종을 울렸다. 그리고 요강을 사용했다. 그 일 년 반 동안 아파서 침대에서 보낸 날들은 내 삶에서 최고의 시간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WW* 182)

소녀의 침묵은 고문상황에서만뿐만 아니라 그 고문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상황, 맥신과 소녀의 엇갈린 듯한 모습 속에서 얘기해 봐야 한다. 맥신은 소녀를 고문한 후에 이상한 병(mysterious illness)에 걸리고 만다. 한 편으로 이 병은 청의 주장처럼 맥신이 자신의 “말하는 권위”(verbal authority)를 내세우기 위해 소녀를 그토록 잔인하게 괴롭혔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Cheung, “Don’t tell” 164).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이 병은 소녀에 대한 고문이 곧 맥신 자신에 대한 고문이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맥신과 다른 듯하지만 사실 아주 닮아 있었던 그 소녀, 말할 줄 알면서도 말하기를 거부하는 그 조용한 소녀는 맥신이 말하는 자아를 고안함으로써 ‘미국 여성’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고 제한하고 부정해야 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굴복시키지 못해 앞으로도 포기시켜야 할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다. 즉 고문의 상황은 미국적 자아를 향한 맥신의 열망과 그 이면의 불안했던 심리가 극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맥신이 아파서 집 안에서 지내야 했던 시간들을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서술하는 것이다. 사실 맥신의 이 서술은 매우 의미심장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맥신이 소녀를 고문할 때 그녀가 늘 가정의 율타리에서 보호받으며 사는 것을, 누가 평생 돌봐 줄 것도 아닐 텐데 말 한 마디 하지 못하는 것을 그토록 질타하고 증오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술 속에서 맥신은 오히려 그녀가 증오했던 “그 소녀가 되어”(Simmons 98) 있었고, 심지어 그것에 행복해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맥신은 아파서 집에 있는 동안 마치 아기가 된 것처럼 가만히 침대에 누워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원가를 요구하려고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애써 자신을 표현해낼 필요도 없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어떤 목소리가 가장 미국 여성다운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

아도 됐다. 집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아파서 집에 있는 동안은 규범적 미국 여성으로서의 말하는 자아를 갖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애써 거부하는 그 고통스러운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됐다. 누군가가 늘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애써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맥신에게 안락함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맥신이 집 안에서 쉬는 동안 누렸던 안락함과 행복은 그녀가 학교에서 심하게 갈라진 목소리일지라도 큰 소리로 말했다는 생각에 느끼던 그 기쁨, 단지 속삭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맥신의 알 수 없는 병의 이면에는 그녀가 그토록 거부했던 중국적 자아에 대한 혼란스러운 열망이 감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녀의 침묵을 달리 생각 볼 만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듯하다.

맥신은 약 1년 반 동안 앓았던 그 이상한 병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더덕진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는데, 과연 맥신이 고문했던 그 소녀는 어땠을까?

하지만 학교에 가자 나는 다시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다. 거기서 내가 고문했던 그 불쌍한 여자애를 만났다. 그 애는 변한 게 없었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를 하고, 초등학생 때와 똑같은 태도로, 그 하얀 얼굴과 분홍 뺨에는 화장기가 없는 것도 그대로였다. [. . .] 그 애는 여전히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었다. [. . .] 아무도 그 애를 돌보아 주지 않을 거란 내 생각은 착각이었다. [. . .] 그 애는 영화를 보러 갈 때만 빼면 집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그 애는 도움을 받고 있었고, 가족들에게 보호 받고 있었던 것이다.(*WW* 182)

오히려 그 소녀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그 깔끔한 옷차림도 변하지 않았고, 말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읽을 줄은 아는 것도 똑같았다. 하지만 그 부분을 서술하는 맥신의 말투는 덩덤하다. 맥신은 말 없는 소녀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의 강박이었음을 깨달은 듯하다. 고문을 당한 이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말 없는 소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 대한 맥신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말 없는 소녀의 침묵이 그 자신은 보호하면서도 결국 맥신을 변화시킨 것이다. 맥신은 “규범적인 미국 여성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사회의 일부가 되기”(Sun 39)를 열망해 왔고, 이는 그녀가 강박적으로 자신을 그 문화적 규범에 맞추도록 했다. 물론 이러한 강박적 노력은 맥신이 말하는 자아를 고안해내는 데 일정 부분 이바지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맥신은 두드러지는 인종적 특징(racial feature)으로 인해 여전히 “주류 사

회에서 타자화” 될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렴풋이 마음 속 이미지로밖에 그려지지 않는 중국적인 것의 표상을 끝없이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타자로 보게 되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39). 즉 맥신이 내적으로 아무리 미국 문화에 익숙해졌을지라도 그녀의 외관은 여전히 중국인 것을 재현해 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어린 맥신을 규범적 미국 여성이 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적 자아를 향한 그녀의 뒤틀린 욕망이 소녀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도록 밀어붙인 동화주의의 폭력성이다. 다시 말해, “백인 여학생들 무리에 끼고 싶은 맥신의 열망”(Cheung, *Articulate Silences* 89) 속 불안과 거기서 소녀에게 행해지는 고문은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 즉 규범적 문화에 동화될 것을 “내적으로 강요”(Hall 226)함으로써 “수많은 닻/정박(anchor) 없는 개인들을 생산”(226)해내는 그 문화적 힘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맥신의 이러한 깨달음 그리고 닻/정박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조용한 소녀의 침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소녀의 침묵은 고문 상황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말하도록 강요하는 맥신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으로만 얘기 되어야 할까? 아니면 고문 상황에서 맥신의 폭력에 대해 소녀가 보였던 무의식적 반응, 즉 방어적 태도로서의 침묵은 그저 소극적인 저항으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어난 도피로만 여겨져야 하는가? 오히려 고문 상황 이후에 맥신과 소녀의 엇갈린 듯한 결과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는 이 조용한 소녀의 침묵을 고문 상황이라는 힘겨루기의 장에서의 의식적인 저항으로 얘기해 보았다. 하지만 소녀가 평소에도 침묵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 사건 이후 고문의 주체인 맥신이 변해야 했던 반면 소녀는 변하기는커녕 여전히 침묵하기를 유지한 채로 나름의 ‘행복’을 즐기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소녀의 침묵은 다른 맥락에서도 유의미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을 달리 보기 위해서는 고문사건에서 한 발 물러나서 맥신과의 대조 속에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즉 소녀의 침묵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문사건이 일어난 당시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후적으로 얘기해 보고자 한다.

맥신은 어머니 용란이 이모 월란에게 남편을 만나야 한다고 떠밀었던 것처럼 침묵하는 소녀를 잔인하게 괴롭혔다. 하지만 맥신은 그 고문을 통해 소녀를 말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을 고문한 셈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고문 이후 변해야 했던 것은 그 소녀가 아니라 맥신 자신이었다. 맥신은 아파서 누워 있는 동안 집 안에서 보호 받으며 행복해 하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몸을 회복하고 학교에 갔을 때는 그토록 고통스럽게 고안해 내야 했던 말하는 자아로부터 다시 멀어

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던 것이다.) 고문 이후 소녀와 맥신의 엇갈린 듯한 이 결과는 맥신에게 꽤 큰 이종의 타격이었을 텐데, 소녀의 변함없는 모습은 어린 맥신이 생각하는 여전사 이미지와 말하는 자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박적이었는지를 폭로함과 동시에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재고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문의 맥락에서 맥신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 변화의 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동시에 침묵하는 소녀에 대한 재고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소녀에게 침묵은 고문 상황에만 비추어 의식적 저항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라고만 봐야 할까?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하여 생각해 본다면, 소녀가 ‘평소에도’ 침묵의 태도를 보여 왔으며, 그 같이 끔찍한 괴롭힘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침묵이 소녀가 살아가는 데 정신적 안식처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 소녀에게 궁극적으로 침묵이 안정감을 주는 것인지는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추측해내기 어렵다. 다만, 소녀에게 그 침묵이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은 맥신의 경우를 통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

맥신은 미국 여성으로서의 말하는 자아를 갖기 위해 자신의 중국적 자아라고 생각되는 일부를 포기하고 거부하는 쓰디 쓴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침묵 역시 그 과정에서 그녀가 포기해야 했던 것 중 하나였는데, 맥신에게 침묵은 “중국 여자애가 되는 것”(WW 166), 즉 중국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맥신에게 침묵이 처음부터 제거해야 할 어떤 중국적 특징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아니다. 분명 어린 맥신에게도 이전에 3년 정도 짙은 침묵이 드리워진 시기가 있었고, 심지어 한 때는 “그 침묵을 즐기”기도 했다(WW 166). 그런데 학교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즉 말하는 것이 의무임을 깨달았을 때 맥신에게 침묵은 더 이상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는 괴로운 곳이 되어 버렸고, 침묵 역시 어떻게든 벗어나고 극복해야만 하는, 증오해야만 하는 어떤 중국적 특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맥신은 즐든 싫든 말해야 했다. “말하지 않을 때마다 괴로웠”(WW 166)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것에 부과된 괴로움 때문에 말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다.

반면, 조용한 소녀의 경우 침묵은 중국인 학교에서도 미국 학교에서도 어떻게든 깨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녀는 맥신이 한 때 그랬던 것처럼 침묵을 여전히 즐기고 있는 듯하다. 소녀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적 말하기, 즉 말해야 한다는 압박에 짓눌려 괴로워하기 보다는 여전히 침묵으로부터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제는 소녀의 침묵을 맥신과의 투쟁의 장에서의 저항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녀에게 일종의 정신적 정박지점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소녀의 침묵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제시할 때는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특정한 장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지금껏 소녀의 침묵이 의식적 저항의 도구였다는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맥신과 소녀 사이의 고문 사건을 투쟁의 장으로 설정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는 침묵을 소녀의 정박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는 고문의 상황에서 한 걸음 벗어나 ‘가정’이라는 공간이 그 장을 대신할 것이다. 즉 소녀가 일상적 침묵에 정박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정이 그것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침묵에의 정박이 어떻게 넓은 의미에서 저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포착하고자 이 논의는 어린 맥신과의 비교를 통해 진행될 것이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난 네가 말한다는 걸 알아 [. . .] 네가 말하는 걸 들은 적 있거든.” 그 애의 눈썹이 반응했다. 그 애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놀라는 기색이 비쳤으며, [. . .] “난 너희 집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 난 몰랐겠지만 난 거기 있었어. 난 네가 영어로, 중국어로 소리치는 걸 들었어. [. . .] 그걸 지금 다시 해 봐. 어서, 네가 집에서 하던 대로 해보란 말이야.”(WW 178)

위의 인용문 속 어린 맥신의 서술은 소녀가 집에서는 크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는데, 이처럼 학교에서는 늘 ‘침묵’을 유지하던 소녀가 가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소녀가 맥신의 경우와는 다르게 (즐거운 것으로서) 침묵을 유지하고, 심지어 그것을 정박지점 삼아 지낼 수 있었던 데는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무의식적 선택’으로서 소녀의 침묵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다. 즉 소녀에게 침묵은 외부의 불쾌한 것들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일 수도 있으나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침묵에 머무르길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아마 가정에서는 소녀의 침묵을 존중함으로써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던 것 같다. 소녀는 늘 가족들의 보호를 받아왔으며, 그러한 보호 아래에서 소녀는 이유도 모른 채 억지로 말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결코 덩그러니 혼자 내던져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소녀의 가족은 그녀가 ‘원한다면’ 침묵을 유지하도록 도우면서도 그녀가 원할 때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일종의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공동체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소녀의 침묵은

가정의 지지와 보호라는 기능 덕분에 고문의 상황에서는 맥신을 지지해 할 저항의 도구였으며, 평소에는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박지점이 되어 준다.

반면, 이러한 가정환경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맥신과 소녀 사이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다. 특히 맥신은 가정에서 어머니 용란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는데, 용란은 그녀가 월란에게 그랬던 것처럼 늘 어떤 상황에 대한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맥신에게 그것을 따르게 한다. 맥신은 용란의 그러한 계획을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것”(WW 169) 혹은 “견딜 수 없는 것”(WW 170) 이라고 표현한다. 용란이 세우는 계획들은 그것을 수행해 내야하는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어떤 이유를 든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 용란의 일방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기에 어린 맥신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어쨌든 맥신은 어머니의 강압적 태도에 짓눌려 그 계획을 수행해 내야만 했다. 여기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일화가 있다. 한 일화는 길모퉁이 약국에서 용란의 세탁소에 약을 잘못 배달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분노한 용란이 저주와 복수를 들먹이며 맥신에게 약국에 가서 공짜사탕을 얻어 오도록 했던 일이다. 물론 약사는 용란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앞에서 맥신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탕을 구걸해야 했다. 또 다른 일화는 용란이 어린 맥신의 혀 소대를 잘라낸 일인데, 용란은 미국에서 살아갈 자신의 딸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지만 맥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을 혐오해야 했다. 물론 여기서도 어머니 용란이라는 인물이 지니는 모순과 함께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을 동화주의의 폭력과 그것의 재생산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와 더불어 아시아계 이민자 1세대인 용란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맥신 사이의 문화적 갈등의 문제가 뒤얽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쩌면 맥신에게 가정은 정신적 안식처라기보다 오히려 학교만큼 복잡한 문제가 교차하는 정체성 혼란의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듯 맥신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머니 용란의 강압적 태도로 인해 곤란함과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했으며, 어머니가 혀 소대를 잘라내야 했을 만큼 미국에서는 영어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생각처럼 말을 잘 뱉어낼 수 없어 괴로워했다. 어른이 된 맥신은 “집에 있을 때면 자주 아팠다”(Here I’m sick so often, [. . .] I can’t help it, Mama.)(WW 108)고 서술한다. 집에서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를 늘 확인해야 했고, 유령 소리(ghost sounds)를 들어야 했다. 이는 조용한 소녀가 오히려 가정의 보호 속에서 침묵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심지어 이 소녀는 학교에서조차도 말하지 않았으며 늘 자신

의 언니에게 보호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아이러니가 있다. 맥신은 고문 상황에서 조용한 소녀가 가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것을 두고 온갖 악담을 퍼부어 낸다. 하지만 끔찍한 폭력에도 소녀는 끝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침묵은 고문의 주체인 맥신을 지쳐 나가떨어지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맥신이 그 고문 이후에 이상한 병을 앓았던 것과 달리 소녀는 고문 이후에도 침묵에 정박한 채로 변함없이 잘 지내는 듯했다.

이처럼 침묵에의 정박에 기반을 둔 소녀의 그러한 변화 없음(changelessness)은 궁극적으로 맥신을 변화하게 한다. 다시 말해, 맥신은 고문 사건 이후에 전도된 일련의 상황, 즉 자신은 이유 없는 병을 앓았으며 말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는데, 소녀는 여전히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는 그 엇갈리고 뒤집힌 결과를 통해 소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닫는다. 말하지 않는 것은 곧 “뇌도 개성도 없는”(WW 180) 것이라는 생각도, “아무도 그 애를 돌봐주지 않을 것”(WW 182)이란 생각도 모두 자신의 착각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소녀는 거기에 변함없이 침묵한 채로 있었으며, 마치 그 존재 자체가 맥신이 그녀에게 퍼부었던 온갖 악담을 단박에 상쇄함으로써 그것들을 받아치기라도 하는 듯이, 말 한 마디 뱉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WW 181)고 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물론 그 소녀는 고문사건 이후에도 오히려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보였는데, 그것은 소녀가 가정의 도움 속에서 침묵에 정박지점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녀는 영화를 보러 갈 때를 빼고는 집밖에 나올 필요도 없었고, 애써 말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다.¹⁵

무엇보다 소녀의 변함없는 침묵이 오히려 맥신을 변화하게 했다는 것은 침묵을 정박지점으로 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소녀들은 백인여성다운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어린 맥신에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백인 여자아이들에게 인정받고 그 무리에 끼어들고 싶은 맥신의 열망은 자신 안의 중국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특징들을 부정하고 제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용한 소녀처럼 병어리(mute)라는 소리를 들

15 소녀가 ‘영화를 보러 다닐 때 말고는 늘 보호 받고 있었다’는 말을 달리 본다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맥신이 어릴 적 어머니 용란이 해주는 이야기(talk-story)를 듣고, 영화를 보며 화무란(Fa-Mu-Lan)이라는 상상의 인물을 통해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형성했던 것처럼, 소녀도 영화를 볼 줄 안다. 즉 맥신이 악담을 퍼부었던 것처럼 소녀가 침묵한다고 해서 뇌도 개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영화를 보는 행위가 상징하듯이 소녀의 침묵이 곧 욕망의 부재로 귀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소녀의 침묵은 단순히 언어의 부재가 아니며, 거기에는 그녀의 욕망이 있을 것이다. 다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는 설불리 얘기하기 어렵다.

을 터였다. 즉 맥신은 병어리로 남을 것인지 치어리더가 될 기회를 얻을 것인지를 양자택일의 순간에 후자의 쪽을 선택한 것인데, 이때의 선택은 한 쪽을 선택함으로써 언제나 다른 한 쪽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강제된 선택”(핑크, 『라캉의 주제』 107)과 같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맥신은 반드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여성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머니 용란처럼 강박적으로 질서를 세우게 되는데, 심지어 그러한 삶의 방식과 질서를 소녀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녀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든 고문의 상황에서 끝까지 말하지 않음으로써 저항한다. 심지어 고문 이후에도 변함없이 침묵하며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즉 소녀는 말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침묵을 정박지점 삼아 나름의 삶을 즐기고 있었던 것인데, 오히려 이 변화 없음이 맥신이 가지고 있던 그토록 강박적인 질서의 세계를, 더 나아가 문화적 규범에 적응할 것을 폭력적으로 요구하는 동화주의적 논리를 교란시킨 셈이다. 또한, 어린 맥신의 이러한 깨달음은 오직 침묵과 크게 말하는 것을 양 극단에 놓고 양자택일을 하는 것,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하나는 배제해야 하는 것, 심지어 필요할 시에는 다른 한 쪽을 폭력적으로 제거해 내고 도려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만이 자신을 표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이후 킹스턴이 글쓰기를 통해 중국계 미국인 작가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고민하고, 목소리를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일부분 맞닿아 있는 듯하다.¹⁶

이렇듯 소녀의 침묵의 기능 및 효과는 단일한 관점에서 얘기되지 않는데, 침묵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저항과 관련지어 얘기한다면 사실상 여러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뒤얽힌 상태로 서로 중첩되고 혼재 되어 있기에 ‘투쟁의 장에서의 침묵’과 ‘정박지점으로서의 침묵’을 완전히 따로 떼어 놓고 보기에는

16 이는 킹스턴에게 “말(speech)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 역시 “저항의 방법”(Duncan 24)이자 정신적 “안식처”(resort)(Cheung, 「“Don’t Tell”」 164)로서 기능했다는 것, 킹스턴의 글 자체가 “학교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던 학생도 [. . .] 똑똑히 말 잘하는 작가(an articulate writer)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언”(Cheung, *Articulate Silences* 89)이라는 비평가들의 말을 염두에 둔 것임을 밝힌다. 또한, 킹스턴은 한 인터뷰에서 “작가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finding a voice)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화자가 다른 여자 아이를 괴롭혔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화자는 그 여자애한테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소리 좀 내’라고 말하죠. 제 생각엔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소리 내는 거 말이에요. [. . .] 하지만 작가에게 그건 곧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과 리듬 그리고 구조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걸 뜻해요. 저는 그것 역시 목소리를 찾는 또 다른 방법(another way of finding voice)이라고 생각해요.”(Los Angeles Review of Books - “I Can Write My Shadow”: Alexis Cheung Interviews Maxine Hong Kingston 2016년 12월 22일 인터뷰 참조함.)

어려운 데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이 두 침묵 모두 매우 정적인 방식으로 저항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들이 소녀에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히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는 두 침묵 사이의 구분으로 귀결된다.

고문의 상황에서 보자면, 맥신과의 ‘투쟁의 장’에서 소녀의 침묵은 권력의 또 다른 향으로 기능한다. 즉 이때 소녀는 말할 것을 강요하는 맥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써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루며, 그런 의미에서의 저항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고문 사건 이후에 전도된 상황은 많은 것을 암시한다. 표면적으로 맥신과의 관계에서 얘기해 본다면, 소녀는 끔찍한 폭력을 당한 뒤에도 가정의 보호 아래에서 변함없이 침묵에 머무른 채로 그것을 ‘정박지점’ 삼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어딘지 뒤틀린 여전사로서의 자아 이미지를 고수하려는 맥신의 맹목성에 균열을 내고, 그녀의 삶의 질서를 교란시켰다. 더 나아가, 이를 심층적으로 본다면 미국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규범적인 백인 여성처럼 말해야 한다는 동화주의적 논리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심지어 소녀는 그 침묵 속에서 일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누린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 침묵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은 그 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다. 다만, 투쟁의 장에서의 침묵이 맥신의 폭력을 견디기 위한 저항의 무기라면, 정박지점으로서의 침묵은 오히려 안락함을 누리는 은신처이자 휴식처라는 것, 그 점에서 다르다. 또한, 전자가 고문 상황에 국한된 침묵이라면, 후자의 침묵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일상적인 침묵을 의미한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침묵의 의미가 달라진 이상, 저항의 의미 역시 같을 수는 없을 텐데, 사실상 이 점에서는 어떤 침묵이 어떤 저항을 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모호하다. 왜냐하면 이번 장은 소녀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녀의 침묵이 저항으로 기능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음을 포착하고, 그럼으로써 소녀의 침묵이 단지 방어적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맥신과 소녀를 권력관계로 둬으로써 고문사건을 투쟁 상황으로 보는 관점에 한정하여 저항을 얘기할 경우, 다소 협소한 논의에 그치거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두 개인 사이의 싸움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정박과 더불어 저항을 얘기하고자 고문 사건 이후를 포함하여 그 외적인 상황, 즉 소녀의 일상적 침묵에 집중한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투쟁의 장에서의 침묵’과 ‘정박지점으로서의 침묵’을 구분 지었다. 따라서 후자의 저항에 대한 논의가 일종의 사후적인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전

자의 침묵에 후자의 의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기에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박지점으로서의 침묵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녀의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려는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고착이나 소극적인 방어적 태도로 여겨질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틈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에 드러난 부분만을 가지고 소녀의 침묵을 일종의 정박지점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소녀가 이 관점의 포착지점을 벗어나서도 침묵을 여전히 정박지점으로 삼을지는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즉 텍스트 내에는 소녀가 고문 이후에도 여전히 가정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침묵했다는 암시가 있을 뿐, 그 이후 소녀의 행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 행보를 추적하는 것은 논외일 테지만, 정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는 있다. 어떤 지점에 나름대로 닳을 내리는 게(drop anchor) 가능하다면, 닳을 올릴(weigh anchor)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떠올린다면 어딘가에 정박한다는 것은 소위 항구적인 안식처 같은 것을 찾는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IV. 『영원한 이방인』의 아줌마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의 주인공 헨리(Henry Park)는 스파이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스파이인 헨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전형적인 스파이 소설은 아니다”(Chen 640). 첸(Tina Chen)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논문에서 『영원한 이방인』의 장르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녀에 따르면 이창래는 스파이 소설의 전형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섬세하게 다시 써냄”(638)으로써 “스파이 소설의 장르를 다시 만들어 낸다”(638). 특히 첸은 장르에 대한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이 작품의 주요 플롯이자 핵심과 맞닿아 있는 ‘스파이라는 직업’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녀는 “주인공 헨리가 스파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638)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이방인』이 전형적인 스파이 소설이 아니라 정체성의 분열 속에서 내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개인의 역사”(638)로 재구성될 수 있었던 것은 복잡한 직물을 짜내는 듯한 작가의 세심한 다시 쓰기를 통해서였음을 언급한다.¹⁷

하지만 스파이로서의 헨리라는 인물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아줌마(Ahjuhma)라고 불리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줌마의 이야기는 작품의 한 챕터 정도에 걸쳐 서술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아줌마는 독자들에게만 수수께끼(mystery)인 것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에도 알 수 없는 지점으로 남아 있는데, 물론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헨리의 1인칭 시점에서 서술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줌마는 비교적 침묵하는(relatively silent) 인물로서 그녀와 다른 인물들 사이에는 마땅히 대화라고 할 것이 오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런 아줌마를 둘러싼 비평가들의 견해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스즈만코(Klara Szmanko)는 아줌마에 대한 헨리의 서술 속에서 그녀를 둘러싼 다양

17 첸에 따르면 『영원한 이방인』에서 스파이라는 직업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아시아계 지식인으로서 주인공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스파이의 자격요건으로 제시되는 비가시성(invisibility)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사실상 인종적으로 결정지어진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보다는 그들에게 “자아와 힘의 소거”(erasure of self and power)(Chen 638)를 은밀하게 요구하는 동화주의의 논리가 담겨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가시성은 스파이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미국에서의 적절한 문화적 위치를 찾고자 하는 헨리의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창래는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2세대 혹은 1.5세대가 항구적으로 겪는 정체성 분열의 문제를 작품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이외의 [비]가시성에 대한 논의는 첸[Tina Chen]과 첩[Anne Anlin Cheng]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한 의미와 해석들에 집중할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의 논문에서 아시아계 미국 문학 작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름 없는 (nameless) 여성들”이라는 소재(tropes)에 주목하는데, 그러한 인물들을 다룰 때에는 그들을 둘러싼 서술 속에서 “의미의 충돌들”(conflicts of meaning)과 “다양한 해석들”(mutiple interpretations), 그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189). 스흐만코는 텍스트 속에서 아줌마가 다른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나 태도까지 면밀히 살핌으로써 거기에 그것으로부터 여러 의미들을 포착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끌어내는데, 무엇보다 이 과정은 아줌마의 ‘이름 없음’에서 얘기 될 수 있는 희생, 억압, 비가시성의 측면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반면 앵글스(Tim Engles)는 아줌마에 대한 서술이 릴리아와 헨리의 시선 및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릴리아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있으며, 세상의 질서가 자연스레 자신에게 맞추어져 돌아간다고 느끼는 세계주의적인 “백인성”(doxic whiteness)(28)의 시선을 대표한다면, 헨리는 릴리아의 그런 백인 대타자와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어느 쪽이든 문화적으로 “반쯤”(half-steps)(27)만 학습된, 항구적으로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 분열을 겪고 있는, 그리 하여 것처럼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줌마를 바라보는 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시선을 대표한다. 특히 앵글스는 이러한 헨리의 정체성 문제가 다른 인물들, 특히 릴리아와의 상호관계(interaction) 속에서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더불어 백인의 입장에서 아줌마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녀에 대해 내려지는 일방적인 판단을 비판하면서 아줌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34)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이렇듯 이번 장에서 헨리에 의해 서술 되고 릴리아에 의해 판단되는, 비교적 침묵하는 아줌마라는 인물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스흐만코와 앵글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즉 헨리의 서술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아줌마를 둘러싼 여러 의미를 끌어내되 이는 그녀를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야기 되고,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다만, ‘저항’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을 떠올린다면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아줌마와 다른 인물들 사이에 늘 작동하고 있는 힘의 역학 속의 묘한 긴장감을 포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 속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권력 관계 안에서 아줌마를 권력의 또 다른 향으로 위치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푸코의 권력이론을 참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권력 관계 속에서 아줌마의 태도를 정박(anchoring)이라는 개념과 함께

애기함으로써 일종의 적극적인 삶의 저항으로 의미화하려 한다.

1. 수수께끼 혹은 버려진 소녀

텍스트 속에서 아줌마에 대한 내러티브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은 헨리가 ‘어떤 계기’로 인해 아줌마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헨리의 회상 속에서 아줌마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앞서 그가 아줌마를 떠올리게 된 ‘그 계기’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다소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건, 바로 거기에 여러 심층적인 문제가 뒤얽혀 있는데,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뒤에 이어질 인물관계와 내러티브적 뒤얽힘, 서로 중첩되고 혼재된 사슬을 풀어감으로써 아줌마라는 인물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조화로워 보인다. 헨리와 릴리아(Lelia), 그리고 아들 미트(Mitt)까지 온 가족이 모여 헨리의 아버지 집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했다. 미트는 즐거워했고 아내 릴리아는 역시 그 곳을 좋아했는데, 특히 그들은 옷장 뒤에 숨겨진 “비밀의 방(secret room)”(NS 66)¹⁸을 마음에 들어 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조용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난다. 어느 날 밤 릴리아는 문득 헨리에게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줌마에 대해 묻게 된다. 그녀가 과연 밤에 무엇을 할지, 그녀에게 친구나 친척이 있을지, 이 집에 온 이래로 고향에 방문한 적은 있는지와 같이 아줌마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궁금증들이었다. 그러나 릴리아의 질문에 대한 헨리의 대답은 일관되게 “나도 모르겠어”(NS 68)라는 것이었는데, 설령 덧붙이는 게 있더라도 헨리는 릴리아와 마찬가지로 아줌마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기에 그녀의 물음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무지의 대화가 절정에 이른 것은 릴리아가 그녀의 이름을 물었는데, 헨리가 그마저도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이다.

[. . .] “도저히 믿기지 않아.” 릴리아가 소리쳤다. 그녀의 기다란 스코틀랜드인 얼굴이 달빛에 일그러졌다.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 왔던 사람이잖아! 그 여자가 당신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 [. . .] “누가 나를 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자가 당신을 키우는 일과 관계가 있긴 했잖아.” “음식하고 청소하고 다리미질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데? [. . .] 당신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많이 의존했어. 당신도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랬을 거고.” 내가

18 앞으로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의 텍스트 원문을 인용할 때는 NS으로 간단히 표기할 것임을 밝혀 둔다.

대답했다. “물론 그랬겠지. 그래서 당신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답해 줘야 하는데?” “당신한테 꼭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게 다야.” [. . .] 그녀는 미트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 당겼다. [. . .] 그녀가 말했다. “나 무서워. 방금 당신이랑 나에 대해 생각해 봤어. 난 뭘까...” 내가 말했다. “이상한 소리하지 마.” [. . .] 이런 식으로, 우리 대화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망가져 가고 있었다. (NS 69-70)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릴리아와 헨리의 상반되는 반응이다. 릴리아는 아줌마에 대한 헨리의 무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런 헨리를 비난하고 답답해한다. 심지어 아주 순수하게 “그냥 궁금해서”(NS 69) 그렇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헨리는 릴리아의 비난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떠올리는데,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대신에 그저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끝낸다. 릴리아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다고 그런 그녀를 비난할 순 없다고 말이다. 그렇게 헨리와 릴리아의 대화는 천천히 망가져 갔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난 뒤의 상황이었다.

이렇듯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릴리아와 헨리 부부 사이의 문제와 얽힌 채로 언급 된다. 릴리아는 헨리와 다툼 다음날부터 아줌마와 대화를 시도하려 그녀에게 접근한다. 헨리는 그들 사이에서 통역을 도맡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릴리아와 헨리를 대하는 아줌마의 태도는 완강하다. 그녀는 릴리아가 조금이라도 다가올 낌새를 보이면 재빨리 자리를 피해 부엌 가까이에 붙어 있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헨리가 아줌마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이번엔 그가 그 침묵에 대고 아줌마를 불렀더니 그녀는 한국말로 답했다. “네 미국인 아내와 나 사이에는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 부엌에서 좀 나가 줘요면 좋겠다”(NS 71).

하지만 아줌마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릴리아의 시도는 계속 되었다. 한 번은 릴리아가 세탁실에서 빨래를 개는 아줌마를 구석에 몰아넣고서는 옆에서 일을 도우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대화는커녕 눈길 한번도 오가지 않았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릴리아가 빨래를 집어 들려고 하면 아줌마는 그것을 슬쩍 빼앗아서 얼른 자기가 개버렸고, 릴리아는 자신이 껌 빨래더미를 굳게 지키며 아줌마의 속도에 맞춰갔다. 아줌마는 이에 투덜거리더니 이번에는 어깨로 릴리아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방에서 밀어내려고 했는데, 릴리아는 아줌마의 그런 공격을 방어하려다가 실수로 아줌마의 귀를 팔꿈치로 세게 치고 만다. 그러자 아줌마의 침묵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녀는 우는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고, 결국 릴리아는 도망치듯이 그 방에서 나와야 했다.

릴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차고에 있는 헨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아줌마는 세탁실로 다시 돌아와 침착하게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릴리아를 보더니 또 다시 돌연 미친 듯이 공격적으로 변해 한국어로 소리친다. “이 고약한 미국 양코양이 같으니라고!”(NS 71) 이에 헨리가 “우리 집”(our house)(NS 71)에서 살고 싶으면 “내 아내”(my wife)(NS 71)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굿듯이 말하며 아줌마를 꾸짖는다. 그러자 아줌마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서 마치 하인이라도 된 것처럼 심하게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재빨리 방을 빠져 나가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줌마와 헨리, 그리고 릴리아 사이에는 모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듯하다.

그런데 릴리아는 이 한 바탕 소동을 지켜보면서도 헨리와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연신 헨리에게 대화의 내용을 물었으나 헨리는 아줌마가 한 말을 아내에게 전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릴리아는 단말마의 욕을 내뱉으며 방을 뛰쳐나가버렸고, 헨리는 그런 릴리아를 쫓아갔다. 릴리아가 향한 곳은 그녀가 이 집에서 좋아하는 “비밀의 방”이었다. 헨리가 릴리아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두 팔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고, 헨리는 그런 릴리아를 달래려 애쓴다.

“이제 그만 똑 그쳐,”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해 봐. 내가 미안해. 나도 그 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에게 늘 수수께끼였거든.” 그녀는 곧 진정했고 울음을 멈췄다. 릴리아는 곧잘 울곤 했다. [. . .] 나는 그녀가 울 때마다 최악을 생각했다. 우리 사이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기라도 할까 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길까 봐 두려웠다. 무엇보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 . .] 그녀가 그저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려 하거나 말도 안 하려고 그랬던 것이었다. “나한테는 수수께끼가 아니야, 헨리.” 이제야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얼굴 전체가 벌에 쏘인 것 같았다. 눈은 부어 있었고 광대뼈도 두드러져 보였다. 그녀는 거의 아시아인처럼, 특이한 러시아인처럼 보였다. [. . .]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그녀는 버려진 소녀야. 몸은 다 자라버렸지만.”(NS 72-73)

지금까지 사건을 종합해 봤을 때 위의 인용문이 함의하는 바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여기에는 크게 두 쌍의 고리가 얽혀 있다. ‘아줌마와 릴리아’의 관계, ‘릴리아와 헨리’의 관계가 그것이다. 일단 ‘아줌마와 릴리아’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다. 릴리아는 헨리가 아줌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결국 아줌마와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끈질긴 시도에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이해가 되

지 않아서, 수수께끼 투성이인 아줌마의 뒤에 숨겨져 있을 법한 소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고 싶은 릴리아의 욕망이 담겨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결국 이 사건은 하인처럼 고개 숙인 아줌마의 이미지와 함께 그녀가 “버려진 소녀”일 것이라는 릴리아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는 점에서 승리는 마치 릴리아 쪽으로 기운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그리 간단히 얘기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릴리아가 아줌마를 ‘알아내고 싶어 하는 욕망’ 뒤에는 어떤 복잡함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릴리아는 가족으로서 늘 보았지만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어딘지 외로워 보이는 아줌마에게 일종의 여성으로서 ‘공감’을 느끼는 듯도 하다. 그런데 이 공감에는 역설이 있다. 한 편으로, 여기에는 헨리와 부부로서 평생을 같이 해도 자신 역시 아줌마처럼 그에게 아무도 아닌 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다. 그것이 헨리와 다름 속에서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며 아들 미트를 꼭 끌어안은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아줌마에 대한 릴리아의 공감에는 일종의 동정이 섞여 있으며, 그 ‘동정 섞인 공감’은 아줌마를 어떤 억압과 희생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보편주의적 여성주의’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결국 아줌마가 “버려진 소녀”일 것이라는 ‘일방적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아줌마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은 우느라 퉁퉁 부어있었던 것에 비해 아줌마는 릴리아의 욕망에 응해주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싸우고 난 뒤에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차분한 모습으로 빨래를 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둘의 권력 관계는 조금은 달리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릴리아와 헨리’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다. 릴리아와 헨리의 다름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언어치료사(speech therapist)라는 릴리아의 직업이 암시하듯이 그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즉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고치려고 든다. 다시 말해, 릴리아는 헨리에게 “지도의 여인”(a woman of maps)(NS 3)이다. 그녀는 일단 무언가 불만스러우면 그 원인을 찾고자 지도를 펼치고 문제의 정확한 지점을 찾아 표시한다. 그리고 자신이 포착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 “리스트”(list)(NS 1)를 작성한다. 반면 헨리는 항상 릴리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녀에 맞추려고 노력해왔고, 둘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들추어내면 돌이킬 수 없을까 봐 애써 덮어두고 감추고 눌러버린다. 헨리는 이렇듯 늘 감정적으로 침묵하는데 비해 릴리아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헨리는 릴리아에 의해 “감정적 이방인”(emotional alien)(NS 2)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된다. 이를 좀 더 심층

적으로 보자면 릴리아는 헨리에게 아내이면서도 백인 대타자(white Other)의 역할을 해왔으며, 헨리는 그런 아내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눈치를 살피야 했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보다 헨리는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렇기에 그는 우는 릴리아를 달래며 자신이 아줌마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해야만 했다.

이렇듯 이후에 이어질 헨리의 회상은 그가 아줌마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음을 릴리아가 비난한 것, 아줌마와의 사건 이후에 릴리아가 눈물을 흘린 것, 더불어 그녀가 아줌마를 “버려진 소녀”(NS 73)라고 판단을 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된다. 이 회상의 계기에는 헨리와 릴리아 부부 사이에 항구적으로 개입하는 인종적·문화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모순적인 데가 있는데, 헨리가 아줌마를 떠올리게 된 것은 단순히 릴리아 ‘덕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헨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아줌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헨리는 그가 어른이 된 이후에는 아줌마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기껏해야 그녀가 ‘수수께끼’였다는 것이 그가 아줌마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전부였다.

2. 아주 먼 친척, 좀비, 시금치 아줌마

헨리는 릴리아와 사건을 계기 삼아 아줌마에 대해 회상한다. 어린 시절 아줌마와의 첫 만남에서 헨리는 그녀를 그리 친근하게 묘사하지 않다. 헨리는 그녀가 “아주 먼 친척”(a very distant relative)(NS 62)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죽은 어머니 중 “그 누구와도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NS 62)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 헨리가 느끼는 낯섬이 담겨 있는 듯한데, 무엇보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는 그렇게 “평생 아버지와 자신 둘만 있을 줄로만 알았던”(NS 60) 어린 헨리에게 아줌마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헨리에게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 영어로 설명하려고 드는데, 어쩐지 상황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왜냐하면 헨리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가끔씩 무언가 감추고 싶거나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면 영어로 말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줌마가 죽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헨리를 돌봐 주고 집안일을 맡아 줄 목적으로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뒤이어 그녀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부유한 동네의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될 것임을 밝힌다. 아버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있

던 헨리는 그 말에 반응하면서 자신은 이사 가길 원치 않는다고 통명스레 말한다. 하지만 헨리의 이러한 불만이 계속 되자 아버지는 곧 한국말로 바꾸더니 단호한 명령조로 헨리의 입을 막는다. “이 얘기는 이제 그만 하자. 저 분은 우리랑 같이 새 집으로 가서 널 돌봐 주실 거야. 이걸 내가 결정한 일이야”(NS 64). 아버지의 말은 설득을 가장한 일종의 통보였다.

헨리와 아버지, 그리고 아줌마가 새 집으로 이사 온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어쨌든 아버지의 말대로 아줌마는 그렇게 새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집에서 헨리와 아줌마 사이에는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새로운 집에서 그 여자는 부엌 식료품실 뒤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방에서 지냈다. 나는 일찌감치 거기 절대로 들어가 보지 않겠다고, 그녀와 친해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태도는 나를 긴장하게 했다. 그녀는 절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말이) 필요할 때만, 처리해야 할 일이 있거나 요청 받은 일이 있을 때, 혹은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반응을 할 경우에만 말을 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그녀에게서 유일하게 들은 소리라고는 그녀가 아침에 밥을 먹고 난 뒤 치아 사이의 공간을 통해 내는 공기를 빠는 듯한 소리가 전부였다. 한번은 그녀가 자기 방에서 콧노래로 한국민요 가락 같은 것을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온 적이 있는데, 내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문간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녀는 바로 노래를 멈춰 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NS 64-65)

아줌마는 부엌 뒤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방에서 지낸다. 그리고 헨리는 그 곳에 들어가 보지 않기로, 아줌마와 친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맥락 상 그것은 아줌마의 태도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듯하다.¹⁹ 아줌마가 특별히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도, 그녀가 비교적 침묵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 헨리는 불편해 한다. 하지만 그는 아줌마의 공간에 접근하지 않기로 ‘결심’ 했으면서도 문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그 곳에 다가간다. 그러자 아줌마는 곧 노래를 멈춰 버리는데, 이렇듯 둘 사이에는 은연중 묘한 ‘권력 관계’ 같은 것이 형성되는 듯하다.

그런데 헨리와 아줌마의 권력 관계는 단순히 얘기되기 어려운데, 아줌마에 대한 헨

19 하지만 이 서술에는 의미심장한 데가 있는데, 헨리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원문에서도 문장들 사이에서도 어떤 접속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그 이유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듯이 ‘아줌마의 태도가 불편해서’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를 텍스트의 다른 맥락과 연관 지어 본다면 헨리가 그렇게 결심한 데는 죽은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비롯하여 아버지의 권위적 태도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를 제시해 볼 수 것이다.

리의 서술은 그녀에 대해 얘기하기에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줌마는 헨리의 서술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 될 수 있다.

나는 가끔 그녀가 뭐 좀비나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녀는 청소나 요리를 하거나 옷을 갈 때가 아니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코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하거나 소음을 내는 법이 없었으며, 마치 자기 몸의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런 식으로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거실에 있거나 베란다에 나가 앉아 있을 때도 결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취미가 없었다.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씩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늘 몇 분 안 있어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이는 내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 알게 된 것이다.)(NS 65)

헨리는 집안일을 할 때가 아니면 마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몸의 일부만 소유”한 듯한 아줌마를 “좀비”(zombie)라고 표현한다. 박유미와 월드(You-me Park & Gayle Wald)는 이 좀비라는 표현에서 여성으로서 아줌마의 몸을 가정이라는 공간과 관련지어 그녀가 작품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재현되는 방식을 문제 삼는다. 그들에 따르면 가정이 아줌마에게 노동의 공간이 되고 그녀의 몸은 가정의 영역(domestic sphere)이라는 구조에 통합됨으로써 비가시화 되고, 결국 미국 사회의 경제·정치·문화적 영역에의 접근을 차단당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재현 방식은 아줌마라는 인물의 욕망과 욕구를 지워 버린다는 것이다(620-23).

하지만 아줌마에 대한 박유미와 월드의 이 같은 주장은 가정을 아줌마가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어떤 영역으로 상정하고, 오히려 그들이 주변화 된 주체라고 일컫는 자들의 무력함을 강조함으로써 희생과 억압 담론에 넣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계급과 젠더라는 지배적 범주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애초에 아줌마의 저항의 가능성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이 논문에서는 박유미와 월드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아줌마가 공간과 맺는 긍정적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볼 것이다.

그녀는 집을 깨끗하고 정돈 되게 유지했다. 사실상 그녀는 옛날 집에서 (지금의 집으로) 우리를 이사하도록 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새로운 집을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해 나갔다. [. . .] 나는 그녀의 두 개의 방과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욕실, 그리고 부엌과 식료품실이 그녀의 영향력 하에 구성된 영역이란 것을 이해했으며, 그녀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진열장이나 찬장을 살피면 재빨리 나를 차단했고, [. . .] 내가 (그 공간에) 너무 오

래 머무른다 싶으면 짜증을 냈다. 그래서 나는 먹거나 마시고 나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 (NS 65)

위의 인용문 속 헨리의 서술에 따르면 아줌마는 집 안을 군림하면서도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스텔만코가 말했듯이 아줌마는 집안에서 하인으로서의 지위만 갖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집 안 전체를 관리하고 지배(reign)하는 자로서, 작게는 부엌이라는 자신만의 공간(place)을 확보하는 자로서 지위를 가짐으로써 거기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처럼 보인다(198). 물론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아줌마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헨리의 서술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가 아줌마의 태도 때문에 부엌에 접근하지 않게 된 데 “배우다”(learned), “이해하다”(understand)(NS 65)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마치 그가 한국의 가부장제의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된 것으로 얘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뒤이어 헨리가 “(부엌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 싶으면 짜증을 냈다”라고 말한 것은 결정적으로 그러한 단일한 해석을 교란시키는데, 이는 아줌마가 자신의 공간들을 지키려는 것으로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논문에서는 아줌마와 공간이 맺는 관계를 얘기할 때, 그녀가 부엌을 비롯한 가정이라는 공간에 단지 포섭되어 궁극적으로 희생된 것으로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줌마를 집 안을 군림하고 자신의 공간을 확보한 자로서 보고자 하는데, 이는 누군가 아줌마의 공간에 침범하려고 할 때 그녀의 툭툭거림에 주목한 것이다.

더 나아가 아줌마의 공간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집 안에서 그녀의 ‘비가시성’과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다. 아줌마는 헨리의 “키 크고 말 많은 백인 친구들”(NS 65)을 불편해한다. 그녀는 그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부엌 옆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그들이 돌아가길 기다린다. 이것을 아시아계 여성의 비가시성의 측면에서 얘기해 본다면 어떨까? 아줌마가 불편한 이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가리켜 단지 그녀가 억지로 무언가에 가려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만 봐야 할까? 오히려 그녀는 굳이 불편한 시선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나, 그런 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만약 그녀의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아줌마가 가정 바깥의 영역에 진출하기를 꿈꾸었을지도 모른다는 피상적인 추측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녀가 집안에서 머무는 동안 그녀에게 끝없이 가해지는 차별적 시선들을 피하고 싶어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아줌마는 헨리의 낯선 백인 친구들이 집 안에 들어와 공간을 차지하고 떠들썩하게 굴면서 그녀를 “부추 아줌마”(Aunt Scallion)(NS 65)라는 이상한 별명을 붙여 부르고, 뒤에서 찡그리며 우스꽝스러

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 그러한 가시화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아줌마의 비가시성은 “눈에 띄고 싶지 않은”(unmarked/unseen)(Chen 645) 욕망이라고, 욕망이라고 보는 것은 자제하더라도 그녀가 그러한 불편한 시선들로부터 피신할 공간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헨리가 보는 아줌마의 모습들은 어디까지나 그가 “아는 한”(NS 65)이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아줌마의 두 개의 방은 누군가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은신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줌마는 집안에 있을 때 괴롭고 힘들어 보인다가 보단 오히려 차분해 보인다.)

이렇듯 지금까지 헨리의 회상 속에서 그가 묘사한 아줌마의 모습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그녀는 꽤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는 듯하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아줌마는 헨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수수께끼같은 존재였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내 릴리아가 헨리에게 문득 아줌마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곤 “나도 모르겠어”(NS 68)가 전부였던 이유일 것이다.²⁰

그런데 지금껏 아줌마의 독특한 태도를 관찰만 하던 헨리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게 된다.

아줌마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아줌마의 가족 쪽에서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어렸을 적에 뭔가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어떤 명명할 수 없는 고통, 끔찍한 무언가를 겪었을 것이라고, 어떤 사악한 사람이 그녀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심어 주었으리라고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런 이유로 자신의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떠나야 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NS 66)

헨리는 아줌마가 가족들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녀에게 끔찍한 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집을 떠나 이곳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헨리의 이런 상상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닌데, 아줌마와 제대로 얘기한 번 나누어 보지 않은/못한 그가 아줌마의 태도 뒤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되는

²⁰ 스톨만코는 아줌마에 대한 헨리의 무감각함(insensitivity)을 그의 아버지의 태도와 비교하면서 비판한다(200). 그녀는 헨리의 이러한 감정적 침묵을 단순히 “아줌마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ingratitude to Ahjuhma)”(200)으로 얘기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릴리아가 여성으로서 아줌마에 릴리아가 여성으로서 아줌마에 공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처럼 아줌마에 대한 헨리의 태도를 그저 무감각한 것으로만 얘기하거나 그런 헨리에 대한 릴리아의 비난을 통해 그가 아줌마를 회상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 계기로만 보는 것은 이들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문화적 맥락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에 스톨만코의 논문에서 이러한 점은 비판하고자 한다. (스톨만코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첸과 앵글스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소위 진실이란 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소 일방적인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상은 심지어 릴리아가 아줌마를 “버려진 소녀”(NS 73)라고 판단 내렸던 것과 오버랩 되기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공감을 빙자한 동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줌마에 대한 헨리와 릴리아의 이 같은 상상 및 판단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줌마와 공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간과한 것이다. 즉 그녀가 나름대로 이 집 안에서의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이다.

3. 부엌과 두 개의 방, 그리고 관계에의 정박

아줌마에 대한 헨리의 회상은 헨리의 흩어진 기억들 속에서 서술된다. 이번 회상은 헨리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데, 시기상으로 앞에서 서술된 기억보다 더 나중의 것이다. 여기에는 회상에 회상이 겹쳐있으며, 여러 가지 기억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아줌마의 존재와 병치되어 서술된다. 이야기는 헨리와 아버지의 다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싸움은 둘 사이에 자주 있는 일인 듯하다. 한 번은 헨리가 아버지와 싸우고 난 뒤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취한 아들을 부축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와 마주한 헨리는 왠지 민망하다. 그런데 아버지는 헨리를 꾸짖기보다 오히려 무뎡뎡한 듯 다정하게 화해의 제스처 비슷한 것을 취한다. 그리고 헨리의 등을 두드리며 아줌마를 도와 유리창을 청소하도록 한다. 그런데 헨리는 그의 말대로 아줌마를 돕다가 문득 옛날 집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유리창을 닦다가 다 같이 어머니가 끓여 주시던 국수를 먹었던 기억이다. 그리고 헨리는 뒤이어 어머니의 죽음, 죽음이라기보다 “사라짐”(disappearance)(NS 77)에 가까웠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떠올린다. 그 누구도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헨리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줌마를 데려오고 새 집으로 이사 갈 것을 통보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회상에 회상을 거쳐 도달한 곳, 거기에는 아줌마가 있었다. 어머니가 수놓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 국수를 끓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 뒤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어머니가 끓여 주셨던 생선 맛 섞인 짭짤한 국수 냄새를 맡았다. 그 여자, 아줌마가 있었다. [. . .] 그녀는 어머니가 바느질하

고 예쁘게 데이지 꽃을 수놓은 노란 장식이 달린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나는 [새 집의] 2층 내 방을 향해 계단으로 곧장 달려 올라갔고, 아줌마는 그런 내게 사투리로 소리쳤다. “이리와, 너 먹을 것도 있어.” 나는 있는 힘껏 문을 세게 닫았다. 30분 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영어로 소리쳤다. “나 좀 내버려 뒤편!” 몇 시간 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는 문을 열었다. 내 발 앞에 국수 그릇이 있었다. 차갑게 식어 버리고 영똥하게 놓인 채로. 그 뒤로 우리는 서로를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NS 77-78)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헨리의 발치에 영똥하게 놓여 있던(displaced) 차갑게 식어 버린 국수 그릇의 이미지, 이것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헨리와 아줌마 사이의 관계이다. 이들의 관계는 틀어졌다. 이는 아줌마에 대한 헨리의 일방적 무관심함이 라기보다 ‘서로’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이번 회상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앞의 회상에서 아줌마를 마냥 낯설게 그렸던 것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아줌마의 모습이 헨리의 옛 기억들, 특히 어머니의 이미지와 병치되면서 아줌마는 잠시나마 그저 수수께끼 같지만은 않고, 심지어 비교적 익숙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익숙함은 어딘지 뒤틀린 데가 있다.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아줌마의 국수 냄새는 단순히 옛 집과 어머니, 아버지의 어색한 듯 다정했던 모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며, 거기에는 그리움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이 섞여 있었고, 결국 이 기억의 끝에 있었던 것은 잘못 놓아진 차가운 국수 그릇의 이미지였다.

따라서 아줌마가 헨리에게 있어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향수나 기억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 뒤틀린 익숙함에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아줌마는 여전히 헨리에게 수수께끼인 데가 있다는 것이다. 한 번은 아줌마가 쉬는 날엔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해진 헨리는 그의 백인 친구와 함께 몰래 그녀의 뒤를 밟는다. 헨리가 궁금해 한 것은 “영어를 단 세마디도 못하는”(NS 78) 아줌마가 혼자서 도대체 뭘 할지였다. 그런데 그녀는 유달리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신문 판매대에서 산 잡지를 훑어보며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그리고 집까지 걸어간 것, 그게 전부였다. 사실상 아줌마의 이런 모습이 그녀를 미행해서까지 꼭 알아내고 싶은 특별한 것은 아닐 테다. 즉 이는 누군가의 눈에 띄 만한 행동은 아니며, 오히려 평범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보고 헨리의 백인 친구는 아주 기괴한 것을 보기라도 한 듯이 말한다. “완전 외계인이네(a total alien) [. . .] 진짜 괴상해(completely bizarre)”(NS 78) 흥미로운 것은 아줌마를 이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헨리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한 번은 아줌마가 헨리의 졸업식에 아버지가 골라 준 옷을 차려 입고 나타난 적이 있는데, 헨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녀는 거대한 송어처럼 보였다. 아버지 취향은 끔찍했다”(NS 79). 이는 이전 회상에서 헨리의 백인 친구들이 그녀를 “시금치 아줌마”(NS 65)라고 부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즉 아줌마의 존재는 늘 백인의 시각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가시화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그녀가 그들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헨리는 어느 날 아주 낯선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대학생이 된 헨리는 봄방학을 맞이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한 번은 차고에 있는 비밀의 방에서 책을 쌓아 놓고 읽던 중 우연히 창밖을 보게 된다. 거기에는 아줌마와 아버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정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 . .] 두 사람은 분명 내가 친구들과 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도, 심지어 서로 이야기를 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둘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 . .] 그렇게 보니, 나는 불안간 그녀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자기만의 삶 앞에 진정으로 서있는 사람 같았다. 두 사람은 뭔가를 보고선 가볍게 웃어보였다. 그 후 몇 주일 간 나는 아버지가 아줌마와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걸로 끝이었다.(NS 80)

아버지와 있는 아줌마의 모습은 매우 편안해 보인다. 그 둘은 함께 정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헨리로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웃음을 서로에게 지어 보였다. 특히 평소에 자신이 “아무도 아닌 듯이”(NS 68) “좀비”(NS 65)처럼 행동했던 아줌마는 이제는 “자기만의 삶 앞에 진정으로 서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 평범하면서도 낯선 장면의 포착은 아줌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데서 주목할 만하다. 즉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 아줌마에 대한 헨리의 시각에서 혹은 릴리아의 동정 섞인 공감과 판단에서 한 발 물러나 아줌마 스스로가 편안해 보이는 모습, 그 웃음에 가치매김 함으로써 드디어 ‘정박’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웃음은 특히 아줌마에 대한 릴리아와 헨리의 일방적 판단을 단번에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아줌마의 정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텍스트적 맥락을 다시 끌어 올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던 권력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화 작업을 비롯하여 아줌마의 삶의 태도 그 자체를 적극적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아줌마

의 정박지점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본다. 하나가 ‘부엌과 두 개의 방’이라는 공간에 있다면, 다른 하나는 ‘헨리의 아버지와 맺는 관계’에 있다. 이를 통해서 아줌마는 그저 가정이라는 공간에, 인종주의와 가부장제가 교차하는 구조에 단지 희생당하고 포섭된 것으로만 얘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부엌과 두 개의 방에의 정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릴리아는 헨리와 다툼 이후 아줌마라는 인물을 알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릴리아는 아줌마가 백인을 불편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도 끊임없이 그녀와 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아줌마는 이에 호락호락하게 응해주지 않고 릴리아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숨어 들어가 버린다. 아줌마는 헨리의 백인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 이 맥락에서 아줌마의 두 개의 방은 갑작스러운 침입, 불쾌한 상황과 시선 등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은신처의 역할을 한다. (앞에서는 이를 비가시성에 대한 욕망과 연결 지어 얘기한 바 있다.) 또한, 릴리아가 헨리의 아버지 집의 비밀의 방을 유독 좋아하고 거기서 시를 쓰기도 하는 것처럼 아줌마에게도 부엌과 그 옆에 딸린 방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아줌마는 헨리가 부엌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 싶으면 짜증을 내며 그 공간에 대한 헨리의 관심을 차단하려 들기도 했는데, 이때의 짜증은 릴리아가 집요하게 접근하려 드는 것에 대해 아줌마가 매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닮아 보인다. 즉 아줌마는 마치 그 공간들을 지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누군가 거기에 침범하는 것을 경계한다. 요컨대, 아줌마의 두 개의 방과 부엌은 그녀가 커다란 집에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것을 갑작스럽고 불쾌한 침입을 피하고, 달갑지 않은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종의 은신처로 삼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줌마가 관계에 마련한 정박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에 관해서는 위의 인용문에서 아줌마와 헨리 아버지 사이에 포착된 어떤 미묘한 편안함이 중심 소재가 될 것이다. 즉 헨리가 정원에서 본 그들은 낯설게도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자체로 행복해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줌마의 정박과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저항으로 기능할까? 이는 다른 인물들과의 비교 속에서 얘기해 볼 수 있다.

아줌마가 정박지점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그 자체로 그녀에 대한 릴리아와 헨리의 일방적인 인식과 판단을 전도시킨다. 헨리는 아줌마에게 다가가려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녀를 그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 두는 데 그친다. 반면, 릴리아는 그 불가사의함 (inscrutability)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그것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집요하게

알아내고자 한다. 이렇듯 헨리와 릴리아는 아줌마를 대하는 정반대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은 공통적으로 아줌마의 침묵과 방어적인 태도가 무엇을 지시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렇기에 이들은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눠 본 적 없는 아줌마에 대해 다소 일방적인 판단을 내린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버려져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원가 씻을 수 없는 끔찍한 과거를 겪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아줌마가 나름대로 공간과 관계에 정박지점을 마련하여 지내고 있었던 데 비해, 소통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통 받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헨리와 릴리아였다. 특히, 아줌마가 헨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였던 편안함은 헨리와 릴리아 부부가 겪는 갈등, 어쩌면 인종문제가 개입 되어 있기에 늘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고 항구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갈등과 대비되는 듯하다. 즉 바로 그러한 아이러니에 지금껏 아줌마를 바라보던 일방적 시각이 뒤집히는 지점이 있다.

헨리와 릴리아 부부 사이의 대화는 그들이 결혼 전 “너무 쉽게 무시해 버렸을”(NS 13) 어떤 문제 속에서 점점 망가져 갔으며, 이들의 불화는 특히 아들 미트(Mitt)의 죽음 이후 더욱 심해진다.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릴리아는 헨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열한 리스트를 남겨둔 채 그를 떠나게 되고, 헨리는 자신을 평가한 그 간결하고 잔인한 리스트를 받은 뒤 일평생 계속 될 정체성의 고비를 맞게 된다. 이렇듯 헨리와 릴리아는 부부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늘 개입하는 인종적·문화적 문제 때문에 서로에게 관계에의 정박지점이 되어 주지 못했다. 이는 릴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릴리아가 아줌마를 보고 느꼈을 동정 섞인 공감 속에는 자신도 헨리에게 아줌마 같은 존재, 즉 늘 함께 있어도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나 무서워. 방금 당신이랑 나에 대해 생각해 봤어. 난 뭘까...”)(NS 70)과 함께 어쩌면 아줌마를 통해 헨리와 자신 사이의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릴리아가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분석가나 치료사 역할을 하려 들면서 아줌마에 대해 내렸던 일방적 판단과 동정 섞인 공감은 오히려 뒤집히게 되는데, 릴리아가 남편 헨리의 감정적 침묵에 고통 받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이처럼 관계에의 정박의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상 릴리아가 아줌마와의 권력관계에서 마냥 우세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아줌마와의 힘겨루기에서 릴리아가 흘린 눈물의 궁극적 원인은 이와 일부분 관련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작품의 말미에는 헨리와 릴리아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그럴 듯한 결말을 이루는 듯 보이지만, 헨리가 릴리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영원한 “장기 방문자”(long-term guest)(NS 347)라고 일컫는 부분이 암시하듯이, 사실상 앞으로도 둘 사이에 이 같은 불

화가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즉 이것이 이 작품의 평화로운 듯한 결말, 릴리아와 헨리의 아름다운 화해가 갖는 어두운 이면이다. 요컨대, 아줌마가 나름대로 헨리 아버지와의 관계에 정박지점을 마련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릴리아와 헨리 부부는 서로를 정박지점으로 삼았다기보다 일종의 게임을 하게 된 것이다. 릴리아가 괜찮다고 하는 한, 헨리는 영원한 방문자이자 장기 투숙객이 되어 “언제나 안으로 돌아오는”(NS 347) 그런 게임 말이다.

특히 헨리의 경우, 공간의 의미에서든 관계에의 정박이든, 더욱 복잡하게 얘기될 것이다. 즉 아줌마가 집 안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여 나름대로 그것을 잘 활용했으며, 더불어 헨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이종으로 정박지점을 마련했다면, 헨리 역시 자신만의 자리를 찾고자 했다. 그의 경우 정박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릴리아와의 결혼, 스파이라는 직업, 아버지를 대신할 사회적 아버지들 찾기와 같은 시도들이 그것이다.

우선,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릴리아와의 결혼생활에서 있어 왔던 갈등뿐만 아니라 그녀와의 화해라는 결말이 갖는 아이러니를 떠올린다면 백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정박지점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스파이라는 직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헨리가 보기에 스파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완벽한 직업”(NS 127)이었으며, 그는 이 직업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승인”(NS 127) 받음으로써 “문화에서 진정한 자리를 발견”(NS 127)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이 스파이라는 직업을 그만 두고 릴리아의 수업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초록색 고무 탈을 쓰고 “언어 괴물”(Speech Monster)(NS 348)이 되어야 했는데, 이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욕망이자 자신의 문화적 자리에 대한 욕망 역시 포기해야 했음을 암시한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는 저항과 관련하여 아줌마와 대비해 볼 수 있다. 헨리는 자기의 스파이 행위가 다른 이민자들을 추방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곧 그들에 대한 배신이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파국을 맞이한다. 다시 말해, 그가 “진정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스파이라는 직업에의 정박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요구되었던 기준, 즉 인종적으로 특징지어진 스파이로서의 자격요건을 잘 지킴으로써 그에게 가해진 인종적·문화적 편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인데, 이는 그에게 강요된 문화적 규범에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아줌마의 정박은 그것이 거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한 동화주의적인 폭력성에 저항을 한 셈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정박은 저항의 효과를 갖는다.

더불어 아줌마가 헨리 아버지와의 관계에 정박지점을 마련한 것에서 살펴 볼 만한

점이 있다면, 바로 헨리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헨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대해 존경과 증오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품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텍스트 내에서 빈번하게 포착되는 헨리와 아버지 사이의 긴장감이나 갈등과 연관 된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헨리와 아버지 사이에는 복잡한 문화적 문제가 개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헨리의 자아 이미지의 분열의 문제가 뒤얽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그저 단순히 볼 수는 없다. 즉 헨리는 한 편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런 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가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남성으로서의 보이는 삶의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고 그것을 증오한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헨리는 아버지를 대체할 만한 다른 인물로서 아시아계 정치인 존 광(John Kwang)을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아버지로 삼는다.

게다가 헨리와 아버지의 사이에 관해서는 그들을 이어주면서 동시에 단절시키는 역설적 특징으로서 마이너리티 남성의 감정적 침묵에 대해 얘기해 볼 수도 있다. 이때 침묵은 한 편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어떤 제스처와 기호를 통해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추측해 낼 수 있는 직관력을 뜻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소통의 부재를 뜻하기도 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헨리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감정적 침묵에 익숙하지만(“나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 [. . .] 아버지 구두에 침을 뱉어가며 광택을 냈다.”)(NS 128) 그로 인해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10대 때는 [. . .] 한 번이라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앞에서 긴장을 좀 풀었으면 했어. [. . .]”)(NS 221).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헨리는 필리핀인 정신분석가 에밀 루잔(Dr. Luzan)을 또 다른 아버지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또 다른 사회적 아버지들을 찾으려는 헨리의 시도는 사실상 닥터 루잔의 죽음과 존 광의 파멸이라는 결과로 인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만다.

이렇듯 헨리의 ‘정박지점 혹은 자리 찾기의 실패’ 정도로 수렴되는 세 가지 경우는 아줌마의 정박과의 대비 속에서 유의미하게 얘기해 볼 수 있다. 아줌마는 나름대로 공간을 확보하여 거기에 몸을 은신하고, 자신의 영역에의 침범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려 했는데, 이 자체에서 저항이 작동한다. 반면, 헨리는 스파이라는 직업을 그만 둠으로써 그가 문화의 진정한 정박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한, 헨리는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대한 증오가 앞서 그를 사회적으로 참조하기에

21 이를테면 청과점의 백인 단골손님이 사과를 한 번 베어 물고는 그대로 다시 놔두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거나 뒤에서 “동양의 유대인들”(Oriental Jews)(NS 53)이라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도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참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는 부적절한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그를 대체할 다른 사회적 아버지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이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고 결혼생활에서는 자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감정적 침묵이 아내이자 백인 대타자인 릴리아의 판단 속에서 늘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으며, 이는 곧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부부 간의 불화로 이어진다. 반면, 아줌마에게 침묵은 제거해야 할 한국적 특징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서 헨리 아버지와의 은밀한 소통의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 그것이 헨리가 정원에서 그 둘을 목격했을 때, 그들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데도 그저 그 자체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던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아줌마는 공간과 관계에 이중으로 신체적·정신적 안식처로서 정박지점을 마련해 둠으로써 미국에서 이민자 여성으로 살아가며 부딪히게 될 여러 문제들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견뎌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 나름의 정박지점 속에서의 아줌마의 버팀의 삶, 금욕이나 자제와는 구별되는 그녀의 삶이 그 자체로서 텍스트 내에서 저항의 기능을 독특히 해낸다는 것이다. 우선, 아줌마는 그녀를 관찰하는 헨리의 일방적 시선을 교란시킨다. 헨리는 정원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아버지와 아줌마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NS 80)고 서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헨리가 예상했던 결혼으로 귀결 되지 않는다. 즉 정박지점에서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은 법적인 보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소위 약속된 권리라든지, 늘 드러나고 가시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 은밀하게 누리던 것이 틈새에서 드문드문 포착될 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항구적인 안식처라든지 고택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줌마의 정박은 헨리가 끊임없이 “통일된 자아”(unified self)(Miehyeon Kim 250)를 찾아 나서는 것과는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일종의 삶의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바로 여기에 그녀에 대해 지금껏 내려졌던 판단, 아줌마가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고 구조에 희생되고 착취되고 있다는 단일한 생각의 전도가 있다.

또한, 아줌마가 그 나름대로 공간에 닿을 내림으로써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녀에 대한 헨리와 릴리아의 극단적 인식이 갖는 문제를 폭로한다. 헨리가 아줌마를 그저 ‘수수께끼’같은 인물로 결론짓는 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의미심장한 데가 있는데, 이는 그의 백인 친구들이 그녀를 괴상한 외계인으로 보는 것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반면, 릴리아가 아줌마와 끈질기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려 드는 것으로, 그 불가사의의 영역을 포획해 내고야 말겠다는, 문제를 찾아내 평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고치고야 말겠다는, 진실을 고백할 것을 강요하겠다는 다소 폭력적인 욕망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줌마는 침묵과 방어적 태도로 윌리아의 침략적 접근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러한 끈질긴 시도에 담긴 폭력적인 욕망에 공격적인 태도로 맞대응한다. 그리고 이때 아줌마가 자신의 공간에 숨어드는 태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줌마에게 부엌과 두 개의 장은 단지 그녀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구조에 포획된 존재임을 표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것이 아줌마의 정박지점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조금 달리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 공간은 아줌마가 인종주의적 시선에 의한 원치 않는 가시화와 그녀를 왜곡된 방식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폭력적 접근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동시에 동화주의의 논리에 의해 강요되는 문화적 규범에 대한 거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아줌마가 부엌과 두 개의 방이라는 공간에, 그리고 헨리 아버지와의 관계에 정박한 것은 그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삶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기능한다. 물론 이는 아줌마에게 가해진 상징적 폭력이나 그녀가 한국을 떠나와 그녀가 미국에서 겪었을 일말의 외로움을 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을 버텨 내기 위해 아줌마가 나름의 정박지점을 마련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자체로 저항의 가능성을 포착하고자 했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줌마라는 인물을 다룰 때 그녀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찾거나 그녀의 삶을 미학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우선 그녀를 내러티브적 뒤얽힘 속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관계의 그물망에서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항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는 인물들을 권력관계로 봄으로써 힘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더 나아가 그것의 전도를 포착해야 했다. 그러나 이때의 전도는 소위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과 인식의 전도에 가까우며 이는 매우 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박에 관해 눈 여겨 볼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줌마가 폐렴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헨리의 아버지에게 자신을 미국 땅에 묻지 말고 화장(to be burned)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에 있다. 이것이 암시하듯이 아줌마에게는 그녀가 떠나온 한국도, 이후에 살았던 미국도 소위 ‘완전한’ 정신적 안식처는 아니었던 듯하다. 이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아줌마의 정박지점이 일종의 삶의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지만 어떤 항구적인 안식처라든지 향수에의 고착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줌마가 아버지와 결혼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헨리의 예상이 빛나간 것에서부

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헨리는 아줌마가 아버지에게 했을 법한 말을 ‘상상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녀에게는 여전히 포획 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

V. 결론

이 논문에서 킹스턴의 『여전사』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 속 세 아시아계 여성인물을 두고서 정박과 저항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진 논의는 사실상 그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즉 여기에는 무엇보다 관점과 틀, 그리고 인식의 문제가 결부 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관점과 틀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인물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통해 텍스트를 어떤 틀과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밑작업이 중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분석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독자로서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포함 되어 있다. 일레인 킴(Elaine Kim)은 『아시아계 미국 문학: 작품과 사회적 상황 입문』의 서문에서 아시아계 미국 문학을 어떤 관점에서 읽을지에 대한 논쟁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소수자 문학을 읽는 두 가지 관점으로, 사회학적 혹은 인류학적인 진술로 바라봄으로써 “내용”(contents)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관점과 소수자 작가의 욕망이 텍스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되는지, 즉 “문학적”(literary) 표현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비교적 최근의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xv). (물론 킴은 어느 관점이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 문학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상 두 관점 모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다.) 또한, 리사 로우(Lisa Lowe)는 『이민법: 아시아계 미국의 문화적 정치에 대하여』에서 한 아시아계 이민자 여성 노동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내러티브를 읽는 틀(forms)의 문제, 더 정확히 말해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 틀의 문제는 단순히 “역사의 투명한 기록”과 “재현” 사이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증언의 틀”(evidential forms)과 “문학적 혹은 예술의 틀”(literary or art forms) 사이의 가치를 순위 매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156-57).

킴과 로우가 언급했듯이 아시아계 미국 문학을 읽는 관점, 더 나아가 여성의 내러티브를 읽는 틀을 제시하거나 선택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루었던 세 아시아계 여성 인물이 ‘침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틀과 관점, 더불어 인식의 문제는 더욱 중요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관점과

들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 되었던 점은 침묵을 소재로 하면서 저항과 정박으로 두 작품 속 세 여성 인물들을 엮어내는 일종의 토대 작업에 집중한 나머지, 이 연구가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제쳐 두고 일정 틀과 관점에 갇힌 관념적인 이론화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작품 분석의 기반이 되어 줄 이러한 토대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그러한 과정에서의 한계와 의의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논문은 ‘침묵’을 다양한 맥락에서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침묵 그 자체에 주목하거나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 침전 되어 있는 것을 읽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은 이 논문의 맥락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이다.) 오히려 이 논문에서는 푸코의 권력이론을 참조하여 우선 인물들이 속해 있는 구조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권력이 편재 한다면 저항으로서의 그들의 힘이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따라서 이런 이유에서 ‘저항’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 문학을 다룰 때, 저항을 단지 권력의 또 다른 향으로, 어떤 힘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권력이 편재하듯이 저항 역시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저항을 얘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이다. 다만, 그러한 저항이 단지 거대한 권력메커니즘의 효과이자 구성물로 얘기될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저항이 소극적인 것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푸코가 말했듯이 권력이 이미 늘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힘들 사이의 역학을 포착하는 것 역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작품 속 인물들을 다루는 것은 다소 모호하고 불충분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저항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모든 상황에 푸코의 권력이론만을 참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고자 ‘정박’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 정박이라는 용어는 서론에서 나름대로 정의해 두긴 했지만, 사실상 두 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보이는 특징을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 포착해 낸 뒤, 이후에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귀납적으로 고안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개념은 늘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인물이나 상황에 따라 비교적 단순화되거나 구체화됨으로써 조금씩 달리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박이라는 개념이 실제 본론의 텍스트 분석 시 사용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수

광범위해지고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어떤 행위예의 정박과 공간에 의 정박을 명확히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혹은 작품 분석 도중에 장소, 공간, 정체성, 저항 등에 대한 연구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그 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이는 추후 작업을 기약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 논문이 진행한 작업에는 그 나름의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권력관계에서 승리와 패배 혹은 성공과 실패는 빈번히 포착된다. 그것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압도적으로 어느 한 쪽의 승리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권력관계를 언급할 때는 단순히 인물들 간의 성공과 실패라는 대결구도를 형성하려는 게 아니었다. 다만, 어떤 순간 혹은 그 순간들의 연쇄가 이루는 상황을 포착하는 한에서 이른바 성공, 실패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권력관계가 불안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했을 테고, 이러한 맥락에서 힘들 사이에서의 전도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성공이라고 일컫는 것을 포착하는 경우이고, 실패를 포착할 경우에는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패를 가져온 조건들, 즉 구조적 폭력성을 폭로함으로써 그것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언급해 온 전도라는 것은 소위 혁명적인 의미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아주 정적이지만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의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될 수 없을지라도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저항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 즉 정박에 대한 의미화 과정 이후에 적극적 저항으로 포착되는 한에서 가능한, 그러한 의미의 전도였다. 그렇기에 이 논문에서 아시아계 여성 인물들의 저항의 가능성, 더 나아가 전복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상 그 인물들 자체에 대한 개인적 진실이나 그들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탐구해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박한다는 것이 가져오는 저항의 기능, 어떤 인물에게뿐 아니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저항의 기능 혹은 효과에 대해 얘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다시 저항의 ‘기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논문에서 다룬 세 아시아계 여성 인물들은 침묵과 관련된 상황과 뒤얽혀 있기에 그들의 행동·반응이나 삶의 태도가 의식적인 것인지 무의식적인 것인지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히 무의식적인 방어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의 희생에 집중해온 비평들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이 세 여성들의 삶의 태도는 그렇게 방어적 태도로 간주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침묵과 관련된 이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달리 얘기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욕망하는 바를 선불리 추측할 수 없다는 데서 그들을 권력관계의 그물망에 위치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일 테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과정은 일종의 점유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유’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점유의 작업에는 그들 인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착각할 위험이 있는데, 이 점을 인지한다고 해서 그저 모든 것을 수수께끼인 채로 둬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것이 소위 점유의 작업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완전히 포획하고 개념화하려 든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향한 강박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는 점, 여기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데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되, 그 미스테리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 논문에서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이를 영두에 두면서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한계들을 이처럼 이 결론의 장에서 언급한다.

무엇보다 그러한 한계 중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항’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간혹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데가 있다. 사실상 여전히 아시아계 여성들의 침묵이 오해 받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본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이 소극적인 저항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호성은 아마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방어적 태도가 침묵과 더불어 갖는 양면성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정박을 적극적 저항이라고 일컫는 것은 ‘거부,’ ‘인식과 판단의 전도,’ ‘시선의 교란,’ ‘폭력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논리의 균열’ 등으로 수렴된다. 권력이 언제 어디서나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상 어떤 저항의 방법이든 구조나 지배체계에 포섭될 위험에 처해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저항이 끝없이 증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무질서와 규범이 부단히 만들어지는 권력의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이 논문에서 저항의 가능성은 포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한계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거부라는 저항의 방법이 지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것의 양면성에 집중하는 것, ‘철저하게 타자화됨으로써 여전히 포섭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실체화하지 않는 선에서 정박이라는 개념을 접합시키고자 한 것이다. (정박에 담긴 디아스포라적인 의미가 더해진다면 그러한 비규정성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리라 생각된다.) ‘인식과 판단의 전도’는 이와 같은 전략 속에서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박은 이 과정에서 그것이 텍스트 혹은

구조의 그물눈 전체에 미치는 효과로 포착 되는 한에서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정박이라는 개념이 귀납적으로 고안된 개념이며 그렇기에 늘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은 여기서 중요하다.

물론 이런 식의 정박과 저항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소수자 문학에서 저항의 논의를 흐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푸코의 권력이론에 집중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권력관계로 두는 데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개인들을 다소 강박적으로 대치 상태에 둬으로써 정작 그들 사이에 작동하는 폭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구조에 있다는 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박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적, 벤야민, 랑시에르 등 여러 이론적 작업을 통해 폭력과 저항, 더 나아가 해방과 같은 인접 개념들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인물들과 어떤 소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저항을 정박과 관련지어 내러티브를 엮어낸 것은 이 논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구조적인 문제를 논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생각 된다. 특히 시선의 교란과 같이 주체와 구조 그리고 그것의 해체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탈식민주의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미처 언급 되지 않았지만 서발턴 연구 역시 이 논문과 일정 부분 겹쳐 있는 듯하다. 또한 이 논문에서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정박 개념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문화 연구와 관련지어 볼 수 있으며, 다른 아시아계 미국 문학에도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 문학의 여성 연구와 함께 생각했을 때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시 저항과 정박의 얘기로 돌아와서 무엇보다 정박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침묵과 관련된 이들의 정박이 저항으로서 보다 유의미하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의식적 차원에서 저항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차원의 그것까지 다룰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여 이들의 저항을 단지 불쾌한 것에 대한 ‘거부’로만 보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텐데, 이럴 경우 정박은 결국 또 다른 구조에 포획되어 그것에 순응하고 있다거나 극단적으로는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 받음으로써 그것이 여전히 수동적인 저항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박이 적극적인 저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들 인물들에 대한 일방적인 판단과 시선을 ‘교란’시키고 단일한 인식에 ‘균열’을 냄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폭로하는 것에 있다. 즉 이는 어떤 은밀한 틈 속에서 정박지점을 마련함으로써 나름대로 안락함을 누리으로써 가능했던 것인데, 이러한 교란과 균열이라는 저항의 기능이 그들이 의도했던 것이든 아니든 작동하고 있으며, 누군가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권력의 그물망 전체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그저 소극적인 방어적 태도로만 여겨졌던 이 여성인물들의 무의식적 저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조에 미쳤을 영향을 텍스트에 남겨진 흔적에서 포착하는 한에서 오히려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저항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삶의 태도에 일정 부분 가치매김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며, 요컨대 이 세 아시아계 여성인물들의 삶의 태도는 단지 희생되고 억압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딘가에 정박지점을 마련한 것으로, 삶의 저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용 문헌>

- 라캉, 자크. 자크-알랭 밀레 편. 맹정현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 프로이트의 기술론』. 새물결, 2016.
- 라캉, 자크. 자크-알랭 밀레 편. 맹정현; 이수련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 사토, 요시유키. 김상운 역. 『권력과 저항: 푸코, 데리다, 알튀세르』. 난장, 2012.
- 스피박, 가야트리 외.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8.
- 임경규. 『집으로 가는 길: 디아스포라의 집에 대한 상상력』. 앨피, 2018.
- 푸코, 미셸. 오성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나남, 2018.
- _____. 이규현 역. 오성근 감수.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의 역사』. 나남, 2003.
- _____.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권: 지식의 의지』. 나남, 2017.
- _____. 오토르망 역. 『정신의학의 권력: 콜레주드프랑스강의 1973~74년』. 난장, 2014.
- 핑크, 브루스.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 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 b, 2010.
- Carroll, Hamilton. “Traumatic Patriarchy: Reading Gendered Nationalisms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MFS* 51.3 (2005): 592-616. Web.
- Chen, Tina. “Impersonation and other disappearing acts in *Native Speaker* by Chang-Rae Lee.” *MFS* 48.3 (2002): 637-67. Web.
- Cheng, Anne Anlin. “Passing, natural selection, and love’s failure: Ethics of survival from Chang-rae Lee to Jaques Lacan.” *American Literary History* 17.3 (2005): 553-74. Web.
- Cheung, King-Kok. *Articulate silences: Hisaye Yamamoto, Maxine Hong Kingston, Joy Kogaw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rint.
- _____. “‘Don’t tell’: Imposed Silences in *The Color Purple* and *The Woman Warrior*.” *PMLA*, 103.2 (1988): 162-74. Web.
- Duncan, Patti. *Tell This Silence: Asian American Women Writers and the Politics of Speech*.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2004. Web.
- Engles, Tim. “‘Vision of me in the whitest raw light’: Assimilation and Doxic

- Whiteness i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Hitting Critical Mass: A Journal of Asian American Cultural Studies* 4.2 (1997): 27-48. Web.
-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J. Rutherford (ed.),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 & Wishart, 222-37 (reproduction of "Cultural Identity and Cinematic Representation," *Framework*, 36, 1989). Web.
- Huntley, E. D. *Maxine Hong Kingston: A Critical Companion*. Green Wood Publishing Group, 2000. Print.
- Kim, Elaine H. *Asian America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P, 1982. Print.
- Kim, Miehyeon. "'Dual Fatherhood' i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and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현대영미소설* 14.3 (2007): 247-72. Web.
- Kingston, Maxine Hong. *The Woman Warrior: Memoirs of a Girlhood among Ghosts*. New York: Vintage, 1976. Print.
- Lee, Chang-rae.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Book, 1995. Print.
- Lee, Young-Oak. "Gender, Race, and the Nation in *A Gesture Life*."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46.2 (2005): 146-59. Web.
- Lowe, Lisa. *Immigrant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rint.
- Massey, Doreen.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rint.
- Parrot, Jill M. "Power and Discourse: Silence as Rhetorical Choice in Maxine Hong Kingston's *The Woman Warrior*." *Rhetorica* 30 (2012): 375-91. Web.
- Park, You-me & Wald, Gayle. "Native Daughters in the Promised Land: Gender, Race, and the Question of Separate Spheres." *American Literature* 70.3 (1998): 607-33. Web.
- Simmons, Diane, *Maxine Hong Kingston*, Twayne Publisher, 1999. Web.
- Sun, Shuang. "Interpreting Silence and Voice in Maxine Hong Kingston's *The Woman Warrior: Memoirs of a Girlhood among Ghosts*." MA Thesis. University of Tampere, Spring 2009. Web.
- Szmanko, Klara. "The Trope of no name woman in American fiction and

- ethnography featuring Asian women.” *Brno studies in English* 30.1 (2004): 189-204. Web.
- Wanger, Roi. “Silence as Resistance before the Subject, or Could the Subaltern Remain Silent?”, *Theory, Culture & Society* 29.6 (2012): 99-124. Web.
- Wong, Sau-ling Cynthia; Sumida, Stephen H. *A Resource Guide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2001. Print.
- Wong, Sau-ling Cynthia. *Maxine Hong Kingston's The Woman Warrior: A Case Boo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rint.
-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anchor>>
- English by Oxford Dictionaries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anchor>>
- Cheung, Alexis. “‘I Can Write My Shadow’: Alexis Cheung Interviews Maxine Hong Kingston.” *Los Angeles Review of Books*. 22 December, 2016.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can-write-shadow-alexis-cheung-interviews-maxine-hong-kingston/>> Accessed 24 April, 2019.